

2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05.86	↓ 코스닥	684.85
	(-15.53)		(-6.60)
↑ 금리 (미국 9년)	4.584	↓ 환율 (원/달러)	1464.00
	(+0.003)		(-7.9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5년 4월 3일 목요일

더 센 '상법 개정안' 온다 野 “집중투표제 등 더해 재추진”

한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에 野 “감사 확대 포함해 다시 추진”
경제계 “상법개정안 입법 되면 기업 소송 시달려 경영 못할 것”
벤처기업 절반 “부정적 영향”



2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거나 독립 이사로 개편하거나 감사 확대하는 조치까지 포함해 상법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업 활동의 손발을 다 묶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상법 개정안에 집중 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더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경제가 심각한 내외외환에 처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결이 불발될 경우 ‘집중 투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거나 독립 이사로 개편하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까지 포함해 (상법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지배 주주에 의해 아주 불공정하게, 불투명하게 운영돼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 주주가 많은 피해를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외국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숫자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현행 ‘단순 투표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될 수 있다. 재계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이사회 내부의 분리선출 감사위원 숫자를 현행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주주에 대항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늘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계는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기자본이 감사위원회 장악력을 키우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에 경제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상법개정안 재추진 여부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직 선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도 “상법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기업들은 미래 경영전략보다 손해 배상청구에만 시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내 벤처기업 절반 정도가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로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 다양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벤처기업협회가 이날 발표한 상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벤처기업의 절반이 넘는 54.7%가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답변은 14.7%였고, 28.4%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에 대해선 38%가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긍정적’은 25.4%, ‘영향없음’은 33.8%였다. 이번 조사에는 총 169개사가 참여했다. /김승호·양성운·서예진 기자

bada@metroseoul.co.kr

“K-방산 미래 먹거리 확대 50조규모 무인기시장 공략”

한화에어로, 유증 발표후 첫 투자 GA사와 단거리무인기 개발 협력

방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한화가 무인기 체계 사업에 진출한다. 지난달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 발표 후 첫 투자로, 미래먹거리 확대를 위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결단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무인기 전문 기업인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ASI·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 Inc.)’과 단거리 이착륙(STOL·Short Take-Off and Landing)무인기 ‘Gray Eagle-STOL(GE-STOL)’의 공동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GA-ASI는 MQ-1 프레데터, MQ-9 리퍼 등 고성능 무인기 개발 및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방국들에 무인기를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 고정익 무인기 전문기업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무인기 역량 확보는 자주국방과 K-방산의 미

래 먹거리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첨단 방산 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양사는 무인기의 기획·설계·개발부터 체계종합·생산·운용·판매까지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GE-STOL’은 이착륙 거리가 최대 수백 미터에 불과해 단거리 활주로, 비행갑판을 갖춘 대형 함정 및 활주부가 없는 야지 등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하다. ‘탑재 가능 중량(payload)’은 1.6톤(t)으로 장비에 따라 정찰, 공격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향후 무인기 플랫폼 공유를 통해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A-ASI 무인기 제품을 운용 중인 국가들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향후 10년간 600대 이상의 GE-STOL의 구매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 지원을 제외한 단순 구매만으로도 15조원 규모의 수출 물량이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가공식품 줄인상... 물가 3개월째 2%대

3월 소비자물가 지수 2.1% 상승 김치·커피 등 가공식품 크게 올라

소비자물가가 석 달 연속 2% 이상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물가 인상을 주도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29(200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9~12월 1%대 인상을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1월 2.2%, 2월 2.0% 상승하는 등 1분기 내내 2%대로 오른 상태다.

특히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3.6% 상승,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전체 물가를 0.3% 포인트 끌어올렸다. 김치(15.3%), 커피(8.3%), 빵(6.3%), 햄 및 베이컨(6.0%) 등 인상폭이 컸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지난해 1%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1월 2.7%, 2월 2.9%에 이서 3개월 연속 인상이 커졌다.

반면,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1.3% 내려, 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2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난달(-1.4%)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다만,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물은 0.9% 상승했다. 농산물은 1.1% 하락했으나, 축산물(3.1%)과 수산물(4.9%)은 오름폭이 컸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2023년 8월(6.0%) 이후 19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2월(0.8%)에 이어 1.4%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사립대 납입금이 전년 대비 5.2% 오른 효과로 분석했다. 외식물가는 3.0%,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3.2% 각각 상승했다. 전체 개인서비스는 1년 전보다 3.1% 인상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韓車·반도체’ 조준... 관세 방아쇠 당겼다

美 백악관 상호관세 세율 공개 우리나라 총 수출액 급감 우려

미국 백악관이 3일(한국시간) 새벽 교역상대국에 매길 상호관세 세율을 공개하며, 바야흐로 관세전쟁이 본격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수입대상국에 10~20%(중국 60%) 상당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무역적자국인 만큼, 우리 경제는 어느정도 타격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미 상무부 집계 따르면 대(對)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660억 달러(96조 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일본(7위)에 이어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에 올라 있다. <관련기사 3·4면>

한국과 미국은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상호 간 무관세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이와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는 멕시코·캐나다에 이미 25%의 보편관세를 부과했다. 한 달간 적용 유예 중이지만 미 행정부가 방침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유럽연합(EU) 등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줄곧 화두로 꺼냈다.

우리나라로선 향후 자동차 수출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6일 자국 시장 외에서 생산된 자동차 및 경트럭에 25%의 관세를 물린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708억 달러(103조 원)를 기록했는데 이 중 대미 수출액이 342억 달러(50조 원)에 달했다. 고율의 관세가 없어지면 현대차 등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역시 우리로선 큰 부담이다. 그간 국내 자동차·부품 기업은 일정 비중의

완제품을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멕시코에서 생산한 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을 활용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차량을 수출해 왔다.

지난해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2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대미 수출액(1278억 달러)의 4분 1을 넘었다. 이에 자동차 부문 관세 부과는 국가 총 수출액의 급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미국은 반도체·의약품 등에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해 왔다. 이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업체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산업연구원은 관세 10% 부과 시 대미 반도체 수출이 5.9% 줄고, 25% 부과 시 감소 규모가 10% 선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전직 국회의장들, ‘개헌’ 강조... ‘윤 선고’ 여야 승복 요구도
▲부산에 마련된 장제원 빈소... 정진석 “윤 대통령 ‘너무 안타깝다’”고 말해 /사진 뉴시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합성생물학 육성법’ 국회 통과
▲여 김건, ‘국제 탄소시장 개막에 따른 대응’ 토론회 개최

▲국회,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의결... 성착취물·그루밍 범죄 처벌 강화
▲어업인 부과 ‘수산자원 조성금’ 폐지... 해수부 소관 법률안 13건 본회의 통과

“쫓개기 근로 양산 ‘주휴수당’ 폐지를… 최저임금 개편 절실”

소공연-민주당, 민생경제 간담회

이재명 대표 “소상공인 매출 급감할 수 있는 일 찾아 최선 다할 것”

민주당 조승래 “논쟁적 이슈보다 경제 전체 살릴 주제에 힘 모아야”

소상공인연계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공동 발굴키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기로 했다.

다만 소상공인연계가 제안한 주휴수당 폐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

소상공인연계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당초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측에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요즘 경기가 나쁠 뿐만 아니라 민생 현장이나 골목상권이 워낙 나빠져 얼굴 들고 다니기 민망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들 빛이 엄청 늘었고 국가경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앞줄 3번째부터) 송치영 소공연 회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공연

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방향전환을 하면 되는데 (정부는) 얼마 안되는 추경조차도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산불 관련 예산도 3조6500억원은 국회 의결없이 정부가 결정해 당장 쓸 수 있다. 그런데 산불 재난 극복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산불 재난 관련 추경 10조원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게 거짓말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앞서 35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내놓은 10조원 규모 추경은 산불 대응과 내수진작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소상공인들 일선에서 매출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고 하는 등 큰일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및 거점 소상공인복지센터 설립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개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 범위 확대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신용·체크카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관리비) 개정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무기한 적용 유예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지만 한다. 15시간 이상 고용 시 주휴수당을 주는 현재 제도 때문에 주당 14시간까지 초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일본은 1990년에 이미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했다.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 모두 불행한 ‘쫓개기 근로’를 양산하는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아울러 “취약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도 공존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한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등과 같은 노동계와 소상공인 사이의 논쟁적 이슈를 본격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 갈등 요소가 되는 것보다 소상공인과 국가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주제를 찾아 힘을 모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업계가 제기한 추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 등 진전된 대화는 없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정말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들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조승래 수석대변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홍근·김원아·오세희·남인순·이해식·김태선 의원이 참석했다. 소공연에선 송 회장을 비롯해, 임수택 수석부회장(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임보란 대한문신사회중앙회장, 이봉승 한국주요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권혁환 한국피부미용협동조합 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득 적을수록 체감물가 상승률 더 높다

한경협, 소득분위별 체감물가 분석 10년간 1분위 상승률 23.2% 달해 4분위 20.9%, 5분위 20.6% 수준

최근 10년간(2014년~2024년) 소비자 체감물가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체감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출 비중이 높은 식품 품 체감물가가 전체 물가상승률의 2배에 달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한경협)는 2일 최근 10년간 소득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 상승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1분위

23.2% ▲2분위 22.4% ▲3분위 21.7% ▲4분위 20.9% ▲5분위 20.6%로 나타났다. 1분위는 소득 수준이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중 2022년을 제외하고 1분위의 체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분위보다 매년 높았다.

소득 1분위는 식품·주류·주류음료(20.9%), 주택·수도·광열(20.0%), 보건(12.6%) 등 생존과 직결된 영역에 지출이 집중돼 있었다. 특히 10년간 식품·주류음료 물가는 41.9% 상승해 같은 기간 전체 물가상승률 21.2%의 약 2배에 달했다.

반면 소득 5분위는 교통(13.0%), 교육(10.5%), 오락·문화(9.0%)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다. 해당 품목의 물가 상승률은 각각 5.3%, 10.6%, 9.2%로 전체 물가상승률(21.2%)을 크게 밑돌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먹거리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체감물가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농산물 수입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유통규제를 개선하며 농산물 수입 다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AK홀딩스 4조 부채에… ‘애경산업’ 매각

애경, 산업 경영권 지분 63.38% 종기기준 단순 지분가치 2426억

애경그룹이 AK홀딩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계열사 매각에 나섰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삼정KPMG를 최근 주관사로 선정하고 애경산업 매각 작업에 나섰다. 매각 대상은 AK홀딩스, 애경자산관리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63.38%다. 이날 종가 기준 애경산업 시가총액이 382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지분가치는 2426억원이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과 자산가치 등을 합치면 매각가는 수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약 6791억원의 매

출을 달성했다. 부문별로 보면 화장품이 약 60%, 생활용품이 약 40%다. 애경산업은 생활용품 브랜드 케라시스, 화장품 브랜드 루나로 유명하다. 애경그룹은 애경산업 매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주력 사업을 항공과 화학 등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애경그룹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 AK홀딩스의 부채 비율은 연결 기준 2020년 233.9%에서 2024년 328.7%로 뛰었다.

특히 AK홀딩스가 자금 조달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지난해 말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해 계열사 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가 보유



애경산업 전경. /애경산업

한 애경산업 지분 63.16%과 제주항공 지분 53.59% 대부분이 담보로 잡혀있는데다 만일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들어올 수 있다.

애경그룹은 골프장 중부CC 등 비주력 사업도 정리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산불 피해농가 지원에 4000억 이상 투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전기 등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와 관련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들도 관련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어 일상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11개 시·군에서 발생했고, 농업분야 피해는 경북지역 5개 시·군에 집중됐다. 지난 달 30일 기준 경북 지역의 경우 산불로 농작물 3414ha(과수 3284ha·기타 130h



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하우스 364동, 부대시설 1110동, 농기계 5506대, 축사 212동, 돼지 2만5000마리, 닭 17만4000마리,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조사 완료 즉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가 원할 경우 재해보험금 50%를 선지급한다. 또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재물을 무상 또는 할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세금과 전기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유상증자 3000억 ‘무인기 사업’ 투자

>> 1면 ‘K-방산 미래먹거리…’서 계속

또한 글로벌 무인기 시장의 경우 오는 2040년까지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부회장이 미래먹거리로 점찍은 이유다.

한화에어로는 무인기 체계 및 엔진 개발, 시설 구축 등에 7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화에어로는 현재 3조6000억원 규모로 유

상증자를 추진 중에 있어 확보한 자금 중 3000억원을 무인기 관련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유증 발표 당시 한화에어로는 “항공엔진 및 엔진부품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무인기용 엔진을 개발할 뿐 아니라 글로벌 무인기 업체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항공엔진 기술의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정부, 피해 최소화 주력 방침... FTA 등 협상 국면 준비

기업에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
경제 전반 불필요한 우려·동요 차단
전문가들 “무역전쟁, 끝이 아닌 시작”

우리 정부는 워싱턴발 관세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향후 대응책이 관건인데, 캐나다·멕시코·중국 등과 같이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 들거나 언급하는 수준은 못 된다.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일단 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3일(한국시간) 새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상국·세율수준 등을 발표하는 즉시 두 자릿수 관세 부과 등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각 기업에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우려·동요 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상순 이후 미 관세 관련 통합상담창구인 ‘관세 대응 119’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신설해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나서고 있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 중국 등 20개 무역관에 ‘관세 대응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해외 진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수출과 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



2일 경기도 평택항 내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애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수출대상지 다변화가 더욱 절실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어 수출 현장의 통상 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피해 지원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조만간 자동차 등 산업별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차관은 인천 주안·부평 국가산단 내 5개 수출기업과 면담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무역금융 ▲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관련 대책 등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여·야 합의로 관세대응·재난지원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 편성에 착수한 상태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조치에 이어 상호관세도 부과될 예정”이라며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쏟아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 철강,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의 산업에서 수익성

저하되거나 가격 오름세로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 행정부는 해외기업을 상대로 자국 시장에 공장 등의 설비투자를 하라고 직간접적으로 종용하고 있다. 해외·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 시장을 휩쓰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은 선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아니면 대체 시장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기존의 동남아를 비롯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또는 유럽 생산기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때라는 지적이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각국 내기업은 고율 관세 여파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대응에 한계가 분명 있고, 있더라도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설문에서 기업들 절반 가까이 ‘동향 모니터링 중’(45.5%)이라고 응답했다. 또 ‘생산코스트 절감 등 자체 대응책 모색 중’이 29.0%에 이어 ‘대응 계획이 없다’라는 기업도 20.8%에 달했다. ‘현지 생산이나 시장 다각화 등을 모색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고작 3.9%에 그쳤다.

해외 전문가들 다수는 상호관세 발표가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전 협상의 여지는 없으나 발표 이후 각국과 협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해 왔다. 그는 지난달 28일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발표 전 협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아니다. 아마 그 후에”라고 했다.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권에 든다. 이에 큰 무역적자를 안기는 15% (미국의 전체 교역국 중 15%) 국가를 뜻하는 ‘더티 15’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나온다. 이 같은 상황하에,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기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거나 협정문을 대폭 수정하기 위한 양자 간 협상으로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원화약세 지속... 환율 1500원 돌파 가능성

국가 리더십 부재... 리스크 대응 취약
“3개월 환율 구간 1380원~1530원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도 높은 ‘상호 관세’ 정책을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원화가 타 통화 대비 뚜렷한 약세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단기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길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5.3원(0.36%) 내린 달러당 1466.60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종가)를 마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원화 가치는 지난 2009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지속했다.

트럼프는 지난달부터 관세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대다수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고,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도 제정했다. 오는 2일(현지시간)에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 정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한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 공표를 하루 앞두고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매체는 백악관이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관세를 부과하는 상대국에 동등한 관세를 부여하는 방안, 앞선 두 방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향후 원화값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하나는 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안의 절충안 등을 놓고 최종 검토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고강도 관세 조치에 중국, 캐나다 등은 보복 조치에 돌입했고, 유럽 연합(EU)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EU는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철강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세이프가드 조치(수입 쿼터)를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35%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상호관세 도입 시 한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화 가치는 타 통화와 비교해 뚜렷한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1월 말과 비교해 3.7% 상승했

고, 같은 기간 유로화 가치도 4.4% 상승했다. 영국 파운드는 4.2%, 호주 달러는 1% 상승했다. 반면 원화 가치는 1.4%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및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분석했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대내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위협에 따른 국내 경기의 하방 리스크 부각이 불가피하다”라며 “대내외 불안 요인이 겹치면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상회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3개월 환율 구간으로 달러당 1380~1530원을 제시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각종 대내외 악재가 산재해 있지만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라며 “상호관세 내용이 한국만에 유독 불리하지 않다면 상호관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원·환율의 추가 상승 재료는 국내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더 장기화하면 국내 국제 신인도 하락과 정책 공백에 따른 내수 불안 확산 및 신용리스크 증폭 등이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

韓 기업, 올해 영업익 5% 이상 감소 전망

수출시장 다변화 등 체질개선 시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로 관세전쟁의 싸움터를 넓히기로 하면서 올해 국내 기업들의 영업성적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기업 체질 개선과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새로운 통상 환경을 위해 기업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193개사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70조94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286조9896억원)보다 5.59% 감소한 수치며, 지난 1월 전망치(274조5398억원)와 비

교해도 1.31% 줄어들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국내 정치 불안까지 맞물리며 원화약세도 이어지고 있어 기업으로서 비용 부담은 커지고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0.9%로, 지난 전망 대비 0.6% 포인트나 낮췄다. 올해 성장(전년 동기 대비)에서 수출 기여도는 상·하반기 모두 0.3%포인트로, 내수(0.5%포인트, 1.9%포인트)보다도 낮다.

/원광희 기자 wkh@

탄핵정국 안갯속... 향후 협상도 난망

>> 1면 ‘韓, 車·반도체 조준...’서 계속

앞서 미국은 모든 수입 철강에 보편 관세 25%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무관세 적용으로 대미 철강수출국 5위권에 든 한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대상 관세 부과 이후 정치적 담판을 위한 양자·다자간 협상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비상계엄 후폭풍에 시달리는 한국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시 2분기 내

내 대선 일정이야.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라도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등에 대한 형사재판은 계속된다.

정부는 일단 피해 최소화 조치에 나선 방침이다.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협상과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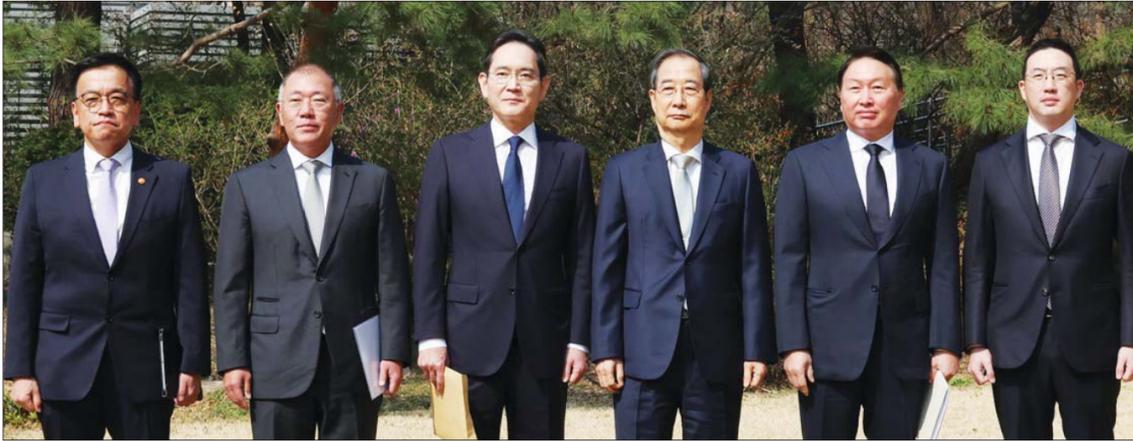
美 상호관세 폭탄... 산업계, 보조금 확보·생산확대로 '맞불'

삼성, 텍사스 공장 보조금 확보 박차 현대차·기아, 현지생산 확대에 대응 LG, 2차전지 부담에 현지 조정 중 SK, 반도체 등 보조금 문제해결 총력 정부, 산업계 지원위해 긴급 대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상호관세로 인해 정부와 산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몇몇 나라,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 발 관세 전쟁'이 전세계로 본격 확대하는 조짐이다. 특히 자동차를 비롯해 반도체와 의약품 등 대미 수출을 주력으로 삼는 한국 기업들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반도체법 보조금 문제가 시급하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47억 4500만 달러)을 트럼프 정부가 지급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2차전지(삼성SDI) 사업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여부도 해결해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 앞서 참석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 권한대행,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뉴시스

다. SK의 반도체와 2차전지 사업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업계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달 12일부터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해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차·기아의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부담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707억 8900만 달러(약 102조원)다. 이 중 미국 수출이 347억 4400만 달러(약 50조원)로 절반(49.1%)을 차지한다. 향후 차량에 탑재되는 엔진이나 부품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추가 관세에 대해서도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G는 미국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백색 가전' 분야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신제품 공세로 백색가전 텃밭인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점유율 유지가 힘겨워진 상황에서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 압박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LG전자의 주요 생산기지인 멕시코에 트럼프가 두 차례 유예한 25% 관세를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세탁기에 20~50% 관세를 무는 등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경험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IRA에 따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특히 시시각각 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대한상의 김현수 경제정책팀장은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조기업들은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공세 등의 간접영향까지 더해져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네트워크와 외교 채널을 통해 관세 영향 최소화에 힘쓰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세와 같은 대외리스크를 이겨낼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 대행은 "어려움이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며 "회장님들이 대표하는 각 분야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 강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中企 대응 전략 "관세", '협력'으로 구분... 법·제도 철저히 검토해야"

중소연구원, 트럼프 1·2기 전방위 연구위원 "산업공동화 우려" 韓, CPTPP 가입 가능성 검토 메가 FTA 통해 관세피해 상쇄

"투자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해라. 협상은 '관세'와 '협력' 분야로 구분해라.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만한 법·제도를 철저히 검토해라. 협력은 선제적 제시보다 미국 반응에 따라 수위를 조절해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구원)이 2일 내놓은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트럼프 정부 1기와 다른 2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전략이다.

중기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대중국 제재, 미국 기업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트럼프 1기 정부와 달리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압박과 미국으로의 투자 유치, 인공지능(AI)·에너지 개발과 경제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2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광범위할 것으로 분석했다.중기연구원 임부영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현 정책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와 정책결정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미 수출 저지가 교역국들의 경제 침체 또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현 관세 조치와 협상은 파장을 고려할 때 장기

간 추진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기연구원은 미국 시장 진입이 힘든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중소기업이 입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계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인도의 경우 수입 철강에 12%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철강 수입량을 15% 감축키로 결정했다. 임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첨단산업 위주로 대미 투자가 늘어날 경우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면 국내는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내의 중소 제조 기반 강화,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자통상체계를 활용하거나 유사국간 연대도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미국 관세의 피해 규모와 한·일·간민감 품목·이슈·영향 등을 비교해 우리나라의 가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를 통해 관세

피해를 상쇄하거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강화도 그중 하나다.

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지원을 고도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원팀 협의회', 코트라 등을 통한 미국의 정책 변화와 현지 동향, 주요국 대응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한다"며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대응이 힘든 미국 관세, 중국 제재의 자사 제품 해당 여부 판단, 이전가격 대응, 환헤지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가격 경쟁력 우려'... 식품·뷰티업계, 현지생산 확대 등 대응책 모색

CJ·한국콜마 등 현지 공장 강화 시장 다변화 전략적 대응 추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하면서 국내 식품·뷰티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미국도 해당 국가 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 정책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식품·뷰티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하락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한국 농식품의 최대 수출국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농식품 수출액은 15억 8870만 달러(약 2조 2000억원)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라면이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 미국 내 가격 인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 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CJ제일제당은 현지 생산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인수한 미국 냉동식품 기업 슈완스가 주요 생산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내에 보유한 공장만 20곳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사우스다코타 스폰스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며,

해외 매출의 8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북미 시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투기 역시 캘리포니아에 현지 공장 설립을 준비 중이다. 현재 부지는 확보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공장 유형은 미정이다. 지난해 8월에는 미국 내 생산법인 '오투기 푸드 아메리카'를 설립했으며, 2028년까지 글로벌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현지 생산과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일단 현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관세가 부과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첫 해외 생산지로서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한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

된다.

화장품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K-뷰티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미국 시장에서 큰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관세가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중심의 국내 브랜드들은 생산거점 이전이나 현지화에 제약이 많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콜마는 이달 중 미국 내 제2공장을 완공하고 상반기 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다수의 중소 브랜드들은 글로벌 유통망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관세 인상 시 제품 품질, 일관성,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자국 보호주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용 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스플래시 볼담' 광고 영상이 등장하고 있다. /삼양식품 제공

담이 커지고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시장 다변화,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최적화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Extensiveness
SK Innovation
idea

[에너지의 무한공식]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 시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면

이노베이션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의

답을 찾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계엄 요건·절차, 포고령 1호 등 5가지 쟁점에서尹 운명 갈려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 위반 가능성 포고령 1호 '정치활동 금지' 지적 선관위 관련 국헌문란 목적 땀 위법 정치인 체포지시, 헌재 판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에 이뤄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관련된 5가지 쟁점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 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일일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포고령 1호 ▲군·경찰의 국회 활동 방해 ▲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 5가지다.

헌재는 이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고, 이 내용과 채택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헌법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4일로 예정된 가운데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의 요건이 충족했는지, 국무회의를 거쳤는지를 살펴봤을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경우 선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3일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 정도로 위중하지 않았다면, 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한 것이 된다.

국무회의 역시 마찬가지다. 변론기일에 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성원

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는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에서의 결의되지 않았고, 국회 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면 절차 위반으로 위헌이 될 수 있다.

포고령 1호의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역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1980년에 있었던 5·17 내란 역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전두환)에게 국회 진입 및 정당 당사 출입을 금지한 지점은 내란 수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치권 인사를 포고령 1호 위반으로 고발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 활동 방해 역시 포고령 1호의 위헌성과 연결된다.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경찰이 출입을 막은 것은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견이 많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과중군 전 특전사령관에게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져,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졌다. 또 전날(1일) 한 매체에서 계엄군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기자를 포박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역시 국헌문란 목적이라 인정될 경우,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 했지만, 계엄법에는 행정부와 법원을 제외한 헌법기관을 봉쇄할 권한이 없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재판 내내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탄핵심판에 유일하게 두 번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정치인 체포'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전 차장에게 "씩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홍 전 차장에게 체포 명단을 알려줬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주장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인 체포 지시 역시 국회 무력화 및 계엄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고, 이를 넘어선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다만 이 지점은 쟁점이 첨예하게 갈리므로 헌재의 판단에 눈길이 쏠린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野, 승복선언 필요” vs 野 “합당한 결론 기대”

尹 탄핵심판 앞두고 여야 여론전 與, 反 민주당·이재명 세력 결집 野,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 이어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틀 남겨둔 2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간담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 또는 각하를 염두에 둔 듯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 한 것은 야당"이라며 "어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판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우에 따라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선동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닌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민

주당이 폭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며 반(反)민주당·반이재명 세력 결집에 힘을 보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성향 재판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을사오적'에 빗대어 파면을 겁박했다. 민주당의 전직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저항 운동을 벌이자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 오로지 조기 대선

을 통해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올립해서 절대 권력을 누리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면서 "아버지 이재명의 조기 등극을 위해서는 경제건, 외교건, 안보건, 사법부건, 헌재건, 모조리 탄핵하고 파괴하며 제거하겠다는 태세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의 합당한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

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헌재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며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정년 60세 → 65세 연장’… 민주당, 연내 입법화 추진

‘회복·성장 위한 정년연장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노·사·전문가 등과 함께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정년연장TF)'를 출범시켰다.

정년연장TF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년연장TF는 고용방식, 보상방식, 청·장년간 세대융합형 일자리 방안 모색 등 정년연장을 둘러싼 쟁점 정리와 조정을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 및 대변인은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2일 청년·노·사·전문가와 함께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정년연장TF)'를 출범시켰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

가 맡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된 데 반해 법정정년은 60세에 머물고 있

어, 2033년 기준 60세 퇴직자는 필연적으로 5년의 소득 공백기를 가지게 된다. 이에 퇴직자의 소득단절을 막고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 숙련 근로자 노후유 활용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년연장TF의 판단이다. /박태홍 기자

한덕수 “불법시위·폭력 유도 발언 삼가야”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2일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호영 경찰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로 예고됐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

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 선고 전후 치안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특히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및 외교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고조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1분기 정비사업 수주 11조... '대어' 압구정·성수 빅매치 예고

삼성물산, 5건 3.5조 수주 '선두'
GS건설, 재개발 2.1조 성과 2위

압구정·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대형 사업 시공사 수주전 가열

건설사들이 연초부터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로 몸을 사렸던 것과 달리 급등한 공사비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다 입지가 좋거나 상징성이 있는 사업자가 대거 시공사 선정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11조원 안팎으로 집계됐다. 1분기만 놓고 보면 2023년 4조5000억원, 2024년 4조원으로 수주실적이 저조했던 데서 2배가 넘게 급증했다.

1분기 정비사업 수주에서 선두주자는 삼성물산이다. 모두 5건, 총 3조 5560억원 규모다. 그간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반도체 공장 건설이 주춤하면서 도시정비사업에서 일감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은 올해 1월 한남4구역 재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 아파트 전경. 최근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안상미 기자

개발(수주액 1조 5695억원)을 시작으로 송파 대림가락 재건축(4544억원)과 방화6구역 재건축(2416억원), 송파 한양3차 재건축(2595억원), 신반포4차 재건축(1조 310억원)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한양3차의 경우 먼저 시공권을 가져간 대림가락 재건축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통합 재건축 모델을 조합에 제시해 좋은 결과를 냈다. 두 단지의 재건축 사업을 각각 진행하면서도 한 단지처럼 운영하는 계획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위8구역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에만 4조원이 넘는 수주실적을 올릴 전망이다.

GS건설도 삼성물산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부산 수영1구역(6374억원)을 시작으로 중화5구역(6498억원)과 봉천14구역(6275억원), 상계5구역(2802억원) 등 모두 재개발 사업에서 성과를 냈다. 총 2조1949억원 규모다.

롯데건설은 신원산역북측1구역 재개발(3522억원)과 상계5구역 재개발(4527억원), 부산 연산5구역 재건축(7017억원), 수원 구운1구역 재건축(3483억원) 등을 가져갔다. 상계5구역

은 GS건설과, 연산5구역과 구운1구역은 현대건설과 함께 수주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광장동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과 함께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1조 2972억원)으로 성과를 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원주 단계주공 재건축과 부산 광안4구역 재개발, DL이앤씨는 연희2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대우건설과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1분기에는 수주 실적이 없다.

건설사들의 수주전은 앞으로 더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을 비롯해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어서다.

압구정 2구역이 오는 6월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사비만 2조 4000억원 안팎에 달한다. 3구역은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난달 말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결정이 고시됐다. 총 4개 지구로 9428세대의 대규모 사업이다. 성수1지구의 시공사 선정이 연말로 예정됐지만 건설사들은 조합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여는 등 분위기는 이미 가열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쏟아진 티머니 고객 포인트·커피쿠폰 선물

신한카드가 '쏟아진 티머니' 고객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이벤트에 응모하고, 쏟아진 티머니를 최소 1회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발뮤다 더토스터프로 ▲메가커피아메리카노 등을 선물한다. 추첨을 통해 총 1003명을 모집한다.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6000마인신한포인트를 지급한다. 쏟아진 티머니 누적 5일 이용 시 1000포인트를 증정하며 10일 이용 시 2000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한다.

'쏟아진 티머니'는 신한쏠페이 앱에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후불청구형 교통서비스다. 스마트폰 접촉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또는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사업지원 서비스 제공

현대카드는 2일 '현대카드마이 비즈니스 씨릿'을 공개했다.

이번 상품은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 영역에 집중한 프리미엄 혜택을 담았다. 부가세 등 각종 세금신고 지원, 사업차 매출 및 상권 분석 등 종합 서비스 등을 준비했다.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1.5%를 M포인트로 적립한다. 사업자들의 결제 빈도가 높은 가맹점은 사업성 경비 영역으로 분류했다. 매월 최대 3만 M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매년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도 제공한다. 롯데·신세계 등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반얀트리 서울·포시즌스·파크하얏트 등 주요 특급호텔 및 더현대드래블에서 등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

iD 스테이션 카드 2종 주유·엔진오일 할인

삼성카드가 '삼성 iD 스테이션 카드' 2종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SK에너지 및 GS칼텍스에서 주유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한도는 월 최대 3만 5000원이며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SK에너지 제휴카드는 스피드메이트 차량점검 서비스도 제공한다. 엔진오일 교체 시 2만원 할인 혜택을 연 2회 지급한다. 차량 안전점검, 타이어 펌크 수리, 타이어 위치 교환 서비스는 각각 연 1회씩 마련했다.

GS칼텍스 제휴카드는 GS&포인트 자동 적립 서비스를 탑재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법인고객 모셔라'... 가상자산업계, 점유율 경쟁 전초전

업비트·빗썸 등 사전가입 개시 코인원·고팍스, 유치방안 모색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 확보를 위한 전초전에 돌입했다. 각 거래소는 법인 고객을 위한 사전 가입을 개시하고, 방문 상담과 투자 안내를 제공하는 등 하반기 확장되는 법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은 지난달 홈페이지 내에 법인회원 가입 신청 서비스를 오픈했다. 홈페이지 내에서 즉시 가입이 가능한 개인 고객과는 달리 사업자등록증명원, 인감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가입을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별도의 가입 안내와 투자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아직 법인 고객 모집을 개시하지 않은 코인원과 고팍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금융당국의 법인 투자 허용에 발맞추기 위해 법인 고객 유치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될 예정인 만큼 거래소들이 추후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고객 선점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분기 내 시행을 목표로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 운영 이후 하반기에는 상장 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도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한다는 목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서 지난 2월 개최한 가상자산 업계 및 전

문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 허용 시기를)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는 3분기를 목표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2분기부터 허용되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현금화 허용만으로는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하반기에 가상자산 거래가 일반 법인까지 확대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는 법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의 70~80%에 달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각 거래소 차원에서는 법인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면서 "4월 중으로 1차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거래소 간에 법인 고객 선점 경쟁이 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쟁이 '점유율 싸움'으로 돌입한 만큼, 새롭게 시장에 진입할 법인 고객 확보는 각 거래소에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점유율 1~2위인 업비트와 빗썸이 전체 거래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2개 거래소는 수수료 만으로도 매출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다른 거래소는 매출이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기존 고객을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법인 고객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삼성물산, 에스토니아에 소형원전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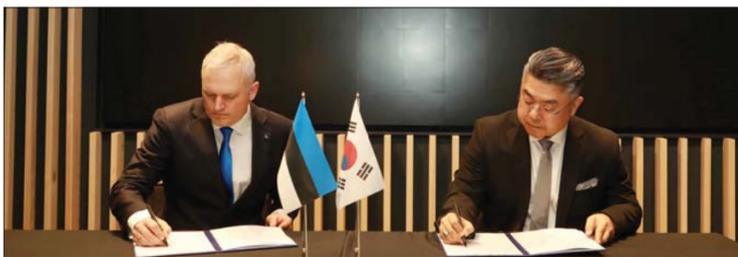
민영 원전기업과 SMR 시장 공략

삼성물산이 에스토니아 소형모듈원전(SMR) 프로젝트 사업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유럽 SMR 시장 확대에 나섰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에스토니아 비즈니스 허브에서 열린 '에너지 미션 컨퍼런스'에서 에스토니아 민영 원전기업인 페르미 에너지아와 현지 SMR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TA)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페르미 에너지아는 에스토니아 SMR 건설을 위해 2019년 현지 에너지·원전 전문가들로 구성해 설립된 기업이다. 지난해 2월에는 에스토니아 수도인 탈린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지역 두 곳을 사업 예정지로 공개하고, 이 곳에 비동형 경수로(BWR)를 개량한 300MW 규모의 SMR 기술 'BWRX-300'을 도입한다고 발표한다. 삼성물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페르미 에너지아가 추진하는 SMR 건설



페르미 에너지아 칼레브 칼레벳 최고경영자(CEO·왼쪽)와 삼성물산 건설부문 김정은 원전영업팀장(상무)이 에스토니아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삼성물산

'BWRX-300'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일본 히타치의 합작사인 GE 히타치에서 개발한 SMR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페르미 에너지아가 추진하는 SMR 건설

에 대한 사업 구조 수립·비용 산정, 부지 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념설계(Pre-FEED)부터 기본설계(FEED)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 초기단계부터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 차세대 2나노 ‘엑시노스’ 생산… AP 경쟁력 회복 기대

신형 갤럭시 스마트폰 탑재 가능성 수율 관건… 특별 테스크포스 구성 “향후 반도체 사업 결정짓는 시험대”

삼성전자의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가 돌아온다.

2년 연속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제외됐던 엑시노스가 차세대 ‘갤럭시 S26’에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에서는 삼성의 AP 경쟁력 회복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IT 틱스터(정보유출자) 주칸로스레브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를 통해 “엑시노스 2600은 확실히 돌아오며 (갤럭시) S26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칩 출하량은 매우 한정적이어서 엑시노스 990상황과 비슷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할 계획이었으나 삼성파운드리 3나노(nm) 공정 수율이 저조해 결국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을 전량 채택한 바 있다. 에 따라 엑시노스 2500은 플래그십 시장에서 배제됐고 시스템LSI사업부의 실적도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세대 2나노 공정(SF2)에서 생산되는 엑시노스 2600이 다시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엑시노스 2600은 3세대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이 적용된 2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기존 3나노 공정(SF3) 대비 성능은 12%, 전력효율은 25% 향상되며 면적은 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2월 초 테스트에서 삼성파운드리 2나노 수율은 약 30% 수준으로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최소 60~70% 이상의 수율 확보가 필요한 만큼 아직 길

멀다”고 덧붙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600의 수율 개선을 위한 특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율이 변수… ‘엑시노스-스냅드래곤’ 이원화 전략 가능성

업계에서는 엑시노스 2600의 수율이 제한적일 경우 삼성전자가 과거 ‘엑시노스 990’ 시절과 유사한 ‘지역별 AP 이원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과 노트 20 시리즈 출시 당시 미국, 중국, 캐나다 등에는 퀄컴 스냅드래곤을, 그 외 지역에는 엑시노스 990을 탑재한 바 있다.

대신증권 박현정 애널리스트는 “엑시노스 2600이 수율 문제를 극복하더라도 전 모델에 탑재될 가능성은 낮다”며 “갤럭시 S26 울트라 모델과 한국, 북미, 중국 시장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셋이, 유럽·인도 등 일부 시장에는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엑시노스 ‘완전 부활’ 가능할까… 시장 반응은 ‘신중 모드’

엑시노스는 갤럭시 S 시리즈에서 채택과 제외를 반복하며 시장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엑시노스 990은 성능 및 발열 문제로 혹평을 받았으며, 엑시노스 2500은 낮은 수율로 인해 갤럭시 S25에서 제외되면서 시스템LSI 사업부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엑시노스 2600이 일부 모델에서라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삼성전자의 AP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수율 개선이 예상보다 더디거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삼성전자의 AP 사업 경쟁력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엑시노스 2600의 성공 여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현대차 ‘2025 베뉴’.

현대차, ‘2025 베뉴’ 출시

지능형 안전기술 기본 탑재

현대자동차가 대표 소형 SUV 베뉴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연식변경 모델 ‘2025 베뉴’를 2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현대차는 2025 베뉴에 엔트리 트림인 ‘스마트’를 새롭게 추가했다. 2025 베뉴 스마트 트림은 ▲열선이 포함된 가죽 스티어링 휠 ▲가속 변속기 노브 ▲풀 오토 에어컨 ▲버튼시동&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 시동 등을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또 인기 트림인 ‘프리미엄’에 기존 모델에서 선택 사양이었던 ▲전방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 ▲후측방 충돌 경고(주행)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진진 출차)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스탑앤고 기능 미포함) 등 지능형 안전 기술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다.

2025 베뉴의 판매 가격은 ▲스마트 1926만원 ▲프리미엄 2212만원 ▲플렉스 2386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 故최종현 경영철학 전한다… ‘선경실록’ 디지털 복원

(SK 선대회장)

한국 경제 성장기 이끈 주역 음성 녹취 등 13만건 자료 복원

“별안간 예측도 못했던 중대한 정치 사안이 생겨도 우리나라는 수습이 빨라. 우리는 가장 리얼리티를 걷는 기업가들이니까 불안 요소 때문에 괜히 우리(기업인)까지 들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정치가 불안할수록 경제까지 망가지면 안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경제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야.”

1970~1990년대 한국 경제 성장기를 이끈 주역인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말이다. 이렇듯 최 선대회장의 경영철학을 담은 이른바 ‘선경실록’이 유고 27년 만에 세상에 나온다.

SK는 그룹 수장고 등에 장기간 보관해 온 30~40여년 전 경영철학과 기



1980년 12월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유공(현 SK이노베이션) 인수 후 첫 출근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SK

업활동 관련 자료를 ▲발굴 ▲디지털로 변환 ▲영구 보존·활용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지난달 말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창사 70주년 어록집’ 제작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옛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한지 2년 만이다.

최 선대회장은 사업 실적·계획 보고, 구성원과 간담회, 각종 회의와 행사 등을 녹음해 원본으로 남겼다. 이를 통해 그룹의 경영 철학과 기법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경영의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이 같은 방침은 ‘SK 고유의 기록 문화’로 계승됐다.

즉 SK 고유의 경영관리체계인 SK MS(SK Management System)를 정립하고 전파하는 과정,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 순간에서 임직원과의 토론하는 장면, 국내외 저명 인사와의 대담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에 담겼다.

이번에 복원한 자료는 오디오·비디오 형태로 약 5300건, 문서 3500여 건,

사진 4800여 건 등 총 1만 7620건, 13만 1647점이다. 최 선대회장의 음성 녹취만 오디오 테이프 3530개에 달한다. 이는 하루 8시간을 연속으로 들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만큼 상당한 분량이다.

최 선대회장의 생생한 육성 녹음을 통해 당시 경제 상황과 한국 기업인들의 사업보국에 대한 의지, 크고 작은 위기를 돌파해 온 선대 경영인의 해안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SK 관계자는 “최 선대회장의 경영 기록은 한국 역동기를 이끈 기업가들의 고민과 철학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보물과 같은 자료”라며 “양이 매우 많고 오래되어 복원이 쉽지 않았지만, 첨단기술 등을 통해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LG전자, 싱가포르에 ‘멀티브이 아이’ 공급 KGM-체리차, 중·대형 SUV 공동개발

동남아 공조시장 공략 속도

LG전자가 싱가포르 초대형 물류센터에 고효율 상업용 에어컨 ‘멀티브이 아이’를 공급하며 동남아 공조시장 확장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싱가포르 투아스 지역에 축구장 약 9개 규모(연면적 5만 9800㎡)의 물류센터에 고성능 냉난방공조(HVAC) 설루션을 납품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물류센터는 싱가포르 건축청(BCA)이 제정한 친환경 건물 인증 프로그램 ‘그린마크’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초고효율(SLE)’ 획득을 목표로 설계됐다.

LG전자는 차별화된 제품 성능과 에너지 절감 기술을 앞세워 이번 프로

젝트를 수주했다. 멀티브이 아이는 ▲고성능 AI엔진 ▲오일 관리 기술(Hi-PORTM) ▲열교환기 면적 10% 이상 확대 ▲내열 성능 강화 등을 통해 실사용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을 최대 33% 높였다. 특히, 기존 중앙제어기에 냉방 능력, 소비 전력, 전체 시스템 효율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추가해 최적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LG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동남아 공조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정책에 맞춘 맞춤형 공조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양사 자율주행 등 기술협력 강화

KG 모빌리티(KGM)가 체리자동차와 중·대형급 SUV 공동 개발 협약을 맺고 양사간 미래 발전을 위한 기술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중국 안후이성 우후시에 위치한 체리자동차에서 열린 공동 개발 협약식에는 KGM 객체선 회장 및 황기영 대표이사, 권용일 기술연구소장을 비롯 인통웨 체리그룹 회장, 장귀빙 사장 등 관련 임직원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대형급 SUV를 공동 개발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율주행 및 최첨단 SDV(Software Define



지난 1일 체리자동차에서 열린 공동 개발 협약식에서 객체선 KGM 회장(왼쪽), 인통웨 체리그룹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GM

d Vehicle) 기반의 E/E 아키텍처(전기/전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용 기자

현대모비스 저탄소 알루미늄 선제 적용

1.5만t 확보… 글로벌 규제 적극 대응

현대모비스가 태양광으로 만든 저탄소 알루미늄을 올해부터 주요 부품 제조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오는 2045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의 일환이다. 알루미늄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 경량화를 위한 핵심 원소재료, 현대모비스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 대응해 원자재 조달 단계에서부터 환경 친화적 공급망 구축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2일 글로벌 알루미늄 생산기업인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EGA)과 구매 계약을 체결해 저탄소 알루미늄 1만 5000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GA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알루미늄 생산 업체다. 이번 확보한 알루미늄은 태양광으로 만든 저탄소 알루미늄이다.

현대모비스가 확보한 저탄소 알루미늄 1만 5000톤은 연간 소요 물량으로 지난해 현대모비스가 구매한 일반 알루미늄(총 6만 7000톤)의 20%가 넘는 규모다.

현대모비스는 이번에 들어오는 저탄소 알루미늄을 새시 등 주요 부품 제조에 활용해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서준혁, 14년 숙원 항공업 진출 이뤄지나... 기업결합 지연

(대명소노 회장)

대명소노, 항공업 공정위 승인 연기
“기업결합 승인 이달 나올 가능성 ↑”
티웨이항공 내달 23일 ‘임시주총’

서준혁 대명소노 회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항공업 본격 진출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대명소노측과 최근 지분 인수를 통해 2대주주가 된 티웨이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경쟁당국의 승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티웨이항공 정기 주주총회는 정홍근 사내이사(대표이사)와 김형이 사내이사, 최성용 사외이사 등 이사 3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정 대표는 대표직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반면 대명소노측 이사 후보였던 서준혁 회장, 이광수 소노인터내셔널 홀딩스 부문 대표이사 등의 선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티웨이항공 항공훈련센터에서 티웨이항공 정기주주총회가 진행됐다. /뉴시스

임 안건은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로 자동 폐기됐다.

대명소노그룹 측 이사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 이유는 주총 전까지 공정거래위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대명소노는 정기 주총 전까지 공정위의 기업결합승인까지 마치고 경영권 인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주총에서 이사회를 원하는 대로 구성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부터 소노인터내셔널과 티웨이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했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는 업계 예상과 달리 승인 결정 대신 보완서류를 요구했고, 대명소노측은 추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명소노는 이미 에어프레미아의 2대주주여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에서는 에어프레미아의 보유 항공기가 현재 6대에 불과해 LCC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달 중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승인이 완료될 경우 서준혁 회장의 숙원사업이었던 항공업 진출이 14년 만에 이뤄진다. 서 회장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난 2011년 티웨이항공 인수전에 참여했지만 매각 측에서 원하는

가격과 서 회장의 눈높이가 달라 최종 인수에 실패했다. 지난해 예림당이 티웨이항공 2대 주주였던 JKL파트너스의 지분을 되살 기회를 포기하면서 서 회장은 JKL파트너스 지분을 인수하고 티웨이항공 2대 주주에 올랐다.

대명소노 측은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오는 5월 23일 티웨이항공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재진입을 시도해 이사회를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다.

업계관계자는 “공정위 승인이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서준혁 회장의 숙원사업 달성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티웨이항공 인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에어프레미아 인수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명소노 관계자는 “공정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전날 폐기된 안건을 재상정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포스코청암재단이 2일 포스코센터에서 제19회 2025년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장인화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 박문정 포스텍 교수, 김진동 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이사, 전용석 포항명도학교 교장, 이철용 사단법인 캠프 대표, 추혜인 살림의원 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청암상에 김진동 대표 등 5명 선정

포스코청암재단, 4개 부문 시상식

포스코청암재단이 포스코센터에서 2025년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교육·봉사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을 발굴·지원한다는 취지다.

2일 포스코청암재단에 따르면 올해 청암상 수상자는 ▲기술상 김진동 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 ▲과학상 박문정 포스텍 화학과 교수 ▲교육상 포항명도 학교 ▲봉사상 공동수상에 이철용 사단법인 캠프 대표, 추혜인 살림의원 원장 등 총 5명이다.

포스코청암상은 박태준 포스코 명예 회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6년에 제정됐다. 포스코 창업이념인 창의존중·인재중시·봉사정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년간 총 68

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상금은 각 부문별로 2억원이다.

기술상 수상자인 김진동 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는 초고순도 화합물 TMA(트리메틸알루미늄)의 국산화에 이어 유기금속화합물 제조 플랜트 설계 기술도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했다. 레이크머티리얼즈는 고부가가치 유기금속 화학소재 전문기업으로, TMA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 배터리, 이차전지 소재, 반도체, LED, 태양광,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 기술력을 공급하고 있다.

장인화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청암상을 통해 과학·기술·교육·봉사 부문에서 탁월한 공헌을 하신 분들을 발굴해 나감으로써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도전하는 문화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벤처기업 인도 우수 SW 개발자 채용 돕는다

중기부, 오늘부터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부터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을 모집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공과대학(IIT) 출신을 비롯한 우수 한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채용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벤처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내달 1일부터는 인도 SW 개발자를 인도 현지에서 모집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재 매칭에 나선다. /김승호 기자

벤처기업 2곳 중 1곳, 상법 개정안 ‘반대’

벤처기업협회, 169개사 조사

이사 총실의무 대상 확대 55% 부정적
벤처기업들, 법적 리스크 증가 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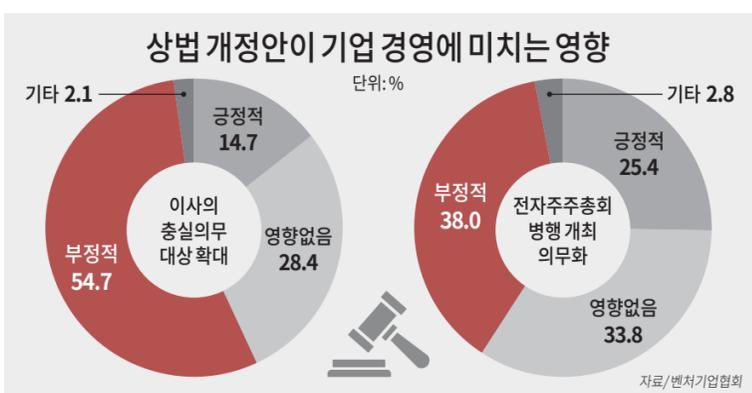
벤처기업 2곳 중 1곳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벤처기업협회가 2일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벤처기업의 절반이 넘는 54.7%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사의 총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답변은 14.7%였고, 28.4%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에 대해선 38%가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긍정적’은 25.4%, ‘영향없음’은 33.8%였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총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빼



자료/벤처기업협회

대로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벤처기업들은 이사의 총실의무 대상 확대에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 다양한 우려들을 제시했다.

상장기업인 전자장비업체 D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 성과에 직결되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이번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략적 투자가 위축되고

사업 전반이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벤처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현재 복합적인 경영 환경에 놓인 벤처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면서 자본 유치, 인수합병, R&D 투자 등 주요 기업 활동이 위축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169개사가 참여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초대형 특수변압기’ 시장 공략 확대

HD현대일렉, 美 풍력발전단지 공급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최대 용량의 위상조정변압기(PS T) 제작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초대형 특수변압기 시장 공략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230kV(킬로볼트)급 653MVA(메가볼트암페어) 위상조정변압기의 최종 승인시험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 초대형 특수변압기는 미국 최대의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인 인베너지가

미국 주에 건설 중인 풍력발전단지에 오는 8월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통상 위상조정변압기는 300MVA급 이상을 초대형으로 분류한다. 이번에 HD현대일렉트릭이 제작한 653MVA 변압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위상조정 변압기 가운데 용량과 크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위상조정변압기는 전력망 간 송전시 발생하는 전류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특수변압기 중 하나다. 전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지원해 전력시스템 전반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이 장점

이다.

또한 위상조정변압기는 전압체계가 다른 국가 간 전력을 교환하거나, 직류 기반의 재생에너지원을 기존 교류 기반의 전력망에 연결할 때 전력 사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위상조정변압기를 비롯한 특수변압기는 전기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돕는 핵심기기로 주목받으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특수변압기 시장 규모는 지난해 25억달러에서 오는 2033년 4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현정 기자

KÖPFKINO

당신의 일상을 영화처럼,
모던한 디자인과 퀄리티까지
모두 갖춘 모듈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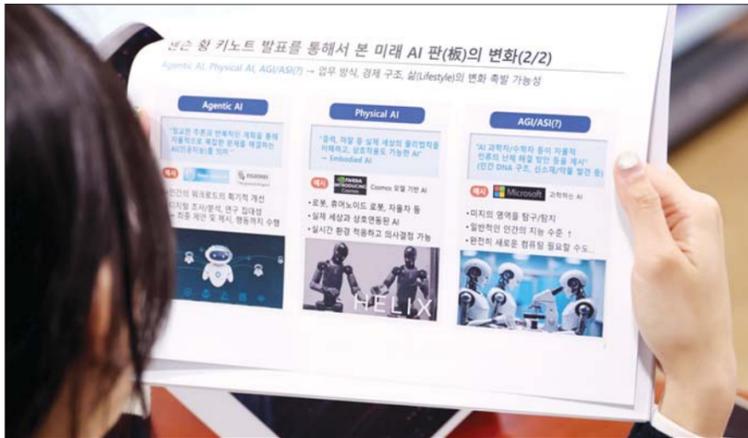
QR코드를 찍고 코프키노 가구를 바로 만나보세요.

AI 직접 쓰고 역량강화하고... 전 세대에서 ChatGPT '열풍'

1020세대, 생성형 AI 활용 '집중'
30대 이상, 교육프로그램 등 참여
AI 관련 도서 독자 78% '30~50대'
기업 "기술·경험 갖춘 인재 선호"
고용부-구글, AI 인재 양성 박차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한 편의점. 카운터에 앉은 편의점 사장님인 김은재(57)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중 하나인 챗GPT에게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 '인기 있는 편의점 간식'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 필요한 것들' 등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이었다. 김씨는 기자에게 "요즘은 챗GPT 쓰지 않는 사람이 없다.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 또한 GPT 삼매경"이라며 "편의점 운영부터 평소 고민까지 모두 챗GPT에게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관한 관심이 1020세대를 넘어 5060세대에까지 이르고 있다. AI가 일상부터 생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이 쏟아지면서다.



지난 GTC 당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가 말한 AI의 발전에 관한 키노트를 살펴보는 사람의 모습. AI에 관한 관심이 전연령대를 초월해 크게 늘고 있다. /뉴시스

2일 업계에 따르면 AI에 관한 관심이 전세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1020세대는 네이티브 AI(Native AI) 세대로서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보는 데에 집중하는 한편, 30대 이상 세대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책을 구입해 보는 등 역량 강화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활용 및 교육 열풍은 생성형 AI

기술의 일상화와 더불어,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상 변화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엑세스파트너십과 AWS의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의사결정권자의 92%가 2028년까지 AI 관련 솔루션을 이용할 예정이며 93%는 5년 내 생성형 AI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3%는 AI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지만 75%는 필요 인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해당 설문조사와 같이 'AI 인재를 필요로 한다'라는 기업 수요는 꾸준히 다양한 설문조사와 통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배경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성형 AI 활용은 여느 나라보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오픈서베이가 공개한 'AI 검색 트렌드 리포트 2025'에 따르면 국내 응답자의 70.5%가 챗GPT를 알고 있으며 이 중 50.9%는 실제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경험률 33.8%), 일본(25.2%)과 비교해 각각 17%p, 25%p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한국의 50대 가운데 챗GPT 인지율은 33.2%, 이용 경험률은 17.7%에 달했다. 10대의 인지율(70.3%)과 경험률(59.7%)은 가장 높았다.

전연령대에 걸친 AI에 대한 관심은 도서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AI 관련 도서 독자의 78.5%는 30~50대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30대가 23.6%, 40대가

30.5%, 50대가 24.2%였다. 60세 이상 독자 또한 전체의 11.9%를 차지했다. 독자 성별 구성비는 남성 독자가 56.3%, 여성 독자가 43.7%를 기록했다.

AI 도서 독자는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층으로 수요가 확산하는 추세다. 여기에 더해 AI 관련 도서 베스트셀러는 실용서적과 AI에 관한 인문·사회학적 고찰이 담긴 교양서적이 비등한 비율로 나타났다.

열린 관심 속에서 정부도 AI 인재 양성 및 교육을 위해 두팔을 걷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구글코리아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역량이 취업 기본기가 되어가고 있어 구글코리아와의 업무협약의 의미가 크다"며 "구글의 AI 전문성과 고용부의 행정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U+ - 서울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 성과

자체 고객피해방지분석시스템 가동
경찰, 악성 앱 피해 예상되는 시민 방문
'악성 앱 의심 경보' 서비스 제공 계획

LG유플러스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악성 앱 설치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을 직접 방문해 금전 피해를 막았다고 2일 밝혔다.

현재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제어 서버를 포착하기 위해 자체 고객피해방지분석시스템을 가동해 실시간 탐지를 진행하고 있다.

탐지 결과를 주기적으로 전달받는 경찰은 금융보안원 등과 검증 및 분석을 거쳐 실제 악성 앱 설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을 방문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노립대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 내 전화·문자 등의 기능이 '가로채기'를 당하므로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다.

LG유플러스도 경찰에 단순히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업계 최초로 지난 2월 말 서울경찰청의 현장 방문에 시범 동행했다. 새로운 범죄 수법을 파악해 실질적으로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는 이유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등에서 진행된 지난 현장 방문에서 악성 앱을 검출·삭제하고 고객의 피해를 막는 성과를 거뒀다.

LG유플러스는 현장 방문을 통해 최근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될 것이라는 안내에 피해자가 당황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은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원격 제어 앱'을 설치시키고 악성 앱을 심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을 장악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112, 1301(경찰), 1332(금융감독원) 등에 직접 신고할 것을 유도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LG유플

러스의 고객피해방지시스템이 악성 앱 활동을 포착하면 경찰은 유관기관과의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LG유플러스와 피해 예상자를 방문하는 공조가 이뤄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 2월 말 진행된 LG유플러스와 서울경찰청의 현장 방문에서도 이같은 범죄 수법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현장 방문 대상 고객의 스마트폰은 카드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몰래 설치한 악성 앱 때문에 모든 전화와 문자가 탈취되고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쉽게 탈취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는 '악성 앱 의심 경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LG유플러스와 서울경찰청은 첫 현장 방문 성과에 기반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KT, 1인가구 맞춤 '무선결합' 혜택 강화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 개편

KT는 1인 가구 혜택 확대를 위해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을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무선 혜택 중심이다. 모바일 요금제 구간별 정액 할인 신설, 모바일 결합 회선수 10회선 확대, 싱글인터넷베이직의 무선 결합 적용 등이 특징이다.

앞서 KT는 지난달 분가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넷·TV 결합 회선을 5회선까지 늘리고 할인 혜택을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유무선을 아우르는 1인 가구 맞춤형 상품군이 완성됐다.

새롭게 신설된 정액 할인은 모바일 요금제 구간 월 3만7000원, 6만1000원, 7만7000원에 따라 각 3000원, 5000원, 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할인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6만1000원 요금제



KT가 1인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을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모델이 KT의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을 소개하고 있다. /KT

를 이용하면 월 5000원 할인을 받아 24개월 기준 총 12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무선 결합 최대 회선수가 기존 7회선에서 10회선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싱글인터넷 베이직 상품에도 모바일 결합 혜택을 추가했다. 인터넷 요금 월 5500원 할인과 함께 모바일 결합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김서현 기자

쿠광플레이, F1 H 그랑프리 첫 현장 리포팅

'풀 패키지' 중계로 선봬

쿠광플레이는 4일부터 2025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이하 'F1') 일본 그랑프리 올 시즌 첫 현장 리포팅과 함께 '풀 패키지' 중계로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쿠광플레이는 이달 4일 시작하는 프랙티스 1·2를 비롯해 5일 오전 11시 15분 프랙티스 3, 오후 2시 20분 퀄리파잉과, 6일 오후 1시 20분 레이스까지 일본 그랑프리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중계한다. 윤재수 해설위원과 안형진 캐스터가

프리뷰쇼 진행을 맡아 특별 분석 내용과 관전 포인트를 설명해 줄 예정이다.

쿠광플레이는 일본을 시작으로 2025 시즌 총 5개 그랑프리를 방문한다. 오는 7월엔 페라리 이적 첫 시즌으로 화제의 중심인 루이스 해밀턴의 홈이자, 'F1의 성지' 실버스톤 서킷에서 개최되는 영국 그랑프리도 최초 현장 생중계로 선보인다.

올 10월 마리아 베이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하는 싱가포르 그랑프리에도 3년 연속으로 중계진이 모두 출동한다. 바르셀로나 서킷과 이별을 앞둔 5월 스



쿠광플레이가 4일 시작하는 일본 그랑프리에서 올 시즌 첫 현장 리포팅을 진행한다. /쿠광플레이

페인 그랑프리 시즌 최종전인 12월 아부다비 그랑프리는 현장 리포팅으로 만나볼 수 있다. /김현정 기자 hjk10

"국내 최강 정신건강 포트폴리오 구축"

넛지헬스케어의 자회사 다인은 휴마트컴퍼니의 국내 1위 멘탈 헬스케어 플랫폼 '트로스트'를 인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정신 넛지헬스케어 대표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작년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전문 기업 다인에 이어 트로스트까지 확보하며 국내 최강 정신건강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B2B(기업 간 거래)·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통합 멘탈케어 플랫폼 '넛지 EAP'을 출범,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케어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심리상담 애플리케이션 중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트로스트는 ▲ 가벼운 우울감이나 불안을 해소하려는 사용자 ▲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 ▲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트로스트는 비대면 심리상담을 비롯해 셀프케어 프로그램, AI 챗봇, 정신과·약물 정보 전달 등 여러 정신건강 관리 솔루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한다. 업계 최초로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을 도입해 보다 효율적인 멘탈케어 가능해졌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이번 인수로 넛지헬스케어의 건강관리 앱 '캐시워크'에도 트로스트 서비스가 연동됐다. /김현정 기자

코스피 614곳 영업익 62% ↑... 삼성전자 제외맨 42% 수준

2024 상장사 결산

연결기준 매출 2918조, 5.43% ↑
 흑자기업 21곳 늘어나 총 477곳

전기·전자 매출액 19% 늘어나고
 부동산 등 5개 업종 매출액 하락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4사업연도 결산 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4곳(금융업 등 89개사 제외)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918조37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196조8161억원으로 61.68% 늘고, 순이익은 142조8091억원으로 81.59%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크게 성장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4사업연도 결산실적〉

(단위: 억원, %)

구분	개별(별도) 기준			연결 기준		
	2023년	2024년	증감률	2023년	2024년	증감률
매출액	14,787,352	15,739,958	6.44	27,679,622	29,183,719	5.43
영업이익	387,090	1,062,234	174.42	1,217,314	1,968,161	61.6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718,525	1,173,087	63.26	983,152	1,805,147	83.61
순이익	726,281	1,025,030	41.13	786,440	1,428,091	81.59

[자료=한국거래소]

6.74%, 4.89%로 각각 2.34%포인트, 2.05%포인트 늘어났다.

다만 전체 상장사 중 매출 비중이 10.3%에 달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42.48%로 떨어진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각각 4.32%, 42.48%, 71.57% 증가했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연결부채비율은 지난해 112.77%로 전년 말(111.72%) 대비 1.05%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다만 수익성이 개선된 만큼 흑자기업은 전년 대비 21곳(3.42%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614곳 중 477곳(77.69%)이 흑자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의 매출액 증감률이 19.13%로 가장 높았으며, 운송·창고(12.76%), IT서비스(9.41%) 등 15개 업종의 매출액이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등 5개 업종은 매출액이 줄어 들었다. 전기·전자 업종은 영업이익(755.01%)과 순이익(380.42%)도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43개사)의 경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4.29%, 12.51%씩 증가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금융지주(9.80%), 증권(60.83%), 보험(11.50%) 등의 순이익이 늘어난 반면, 은행(-0.58%)과 기타(-8.92%)는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사들도 내실있는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스닥 1203개사 기업의 총 연결 기준 매출액은 273조3467억원으로 전년 대비 4.48% 증가했다.

다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9조6403억원, 3조4817억원으로 각각 2.71%, 13.45%씩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3.53%, 순이익률은 1.27%로 전년 대비 각각 0.26%포인트씩 하락했다. 부채비율은 104.93%로 전년 말 대비 0.33%포인트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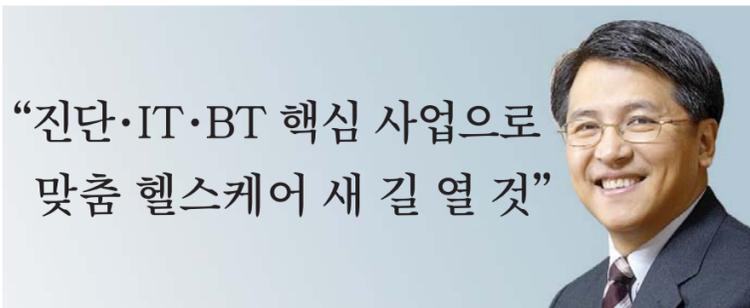
수익성이 부진했던 만큼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30곳 증가했다. 분석 대상 1203개사 중 692곳(57.52%)은 순이익 흑자를 실현했으나, 511곳(42.48%)은

적자로 집계됐다. 상장사 5곳 중 2곳 이상이 순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적자를 기록한 511곳 중에는 코스닥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이 포함됐다.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한 158개사는 전기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으며, 353곳은 적자가 지속됐다.

코스닥150지수 편입기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5%, 17.81% 증가했다. 코스닥150지수 편입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49%로 미편입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2.39%보다 4.1%포인트 높으며, 전년 동기 대비 0.80%포인트 수준의 소폭 개선세를 보였다.

전년 동기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6%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6.4% 증가했다.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88%로 미편입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3.11%보다 3.7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코스닥 CEO 인터뷰

김진태 유튜바이오 대표

"유튜바이오가 맞춤형 헬스케어(Healthcare)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

국내 유일의 헬스케어 IT/BT 융합기업인 유튜바이오가 데이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김진태 대표가 이끄는 유튜바이오는 2009년 창업 이후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하며 2023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대표는 "일상 속에 스며든 데이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파트너가 되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회사의 미래를 내다봤다.

2000여개 병·의원, 검진센터에
 체외진단검사 서비스 제공 중

진단·검진·EDC 플랫폼 구축
 3개 독보적 영역으로 성장 기대

창업 배경을 묻자 김 대표는 1992년 메디슨 사내벤처에서 출발해 유비케어를 창업하고 SK그룹에 편입시키기까지 책임경영을 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는 "전자의무기록(EMR) 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기존 주요 스태프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유튜바이오는 ▲진단사업 ▲IT사업 ▲BT사업의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진단사업은 병·의원 및 건강검진센터를 대상으로 체외진단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전국 2000여개 병·의원과 거래 중이다. IT사업은 건

강검진센터용 종합 관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유지보수 및 진단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한다. BT사업은 연구임상, 체외진단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허가임상, 건강기능식품 유효성 검증 등을 수행하며, 장내 미생물 검사 기반 맞춤형 유산균 공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유튜바이오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IT와 BT를 결합한 독자적 서비스 모델이 있다. 김 대표는 "기존 대형 검사 수탁기관들과 경쟁해야 하는 레드오션 시장에서 유비케어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IT 역량을 접목해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유튜바이오는 2020~2022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수도권 10여 개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난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김 대표는 "2023년 308억원, 지난해 250억원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올해 새로운 전략을 통해 확실한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성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진단 플랫폼 ▲검진 플랫폼 ▲전자데이터 수집(EDC)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진단 플랫폼은 국내의 진단·의료기기·바이오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검진 플랫폼은 전국 건강검진센터 인프라 위에 구축될 예정이다. EDC 플랫폼은 대한혈액학회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김 대표는 "이 사업들은 유튜바이오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영역"이라고 자부했다.

[김대환 기자 kdh@

코스콤, 신용정보원 IT인프라 개편 착수

보안·안정·확장성 견비 업그레이드
 효과적 업무개발 지원 기반도 추진

코스콤이 국내 유일의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시스템 혁신을 돕는다.

코스콤은 '신정원 차세대 IT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을 수주하고, 본격적인 신용정보시스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신용정보원의 IT 시스템을 클라우드 중심의 유연한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날로 복잡해진 데이터 유통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은 2025년 3월부터 약 15개월 동안 진행된다.

전체 사업은 업무개발 분야와 인프라 구축 분야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뉘며, 코스콤은 인프라 구축을 전담한다. 이는 앞서 지난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10개월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1단계 사업'의 연장선이다. 당시 코스콤이 수행한 기술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시스템 전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코스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용정보원의 차세대 시스템을 보안성·안정성·확장성을 견비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지난 3월 3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정보원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이승범 코스콤 전무, 윤창현 코스콤 사장, 최유삼 신용정보원장, 유인지 코리아엑스퍼트 대표이사, 염동훈 메가존클라우드 대표이사.

드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코스콤은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인프라를 구성하고, 탄탄한 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운영 인프라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기존 시스템보다 안정성과 확장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향후 업무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 작업도 추진한다. 개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도 설계한다.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관리 체계도 마련해 업무 개발 담당 기업과의 협업 시너지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코스콤은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

가능형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유통 허브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력을 이번 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은 첨단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지난 2023년 진행된 1단계 구축사업에 이어 이번에 다시 함께 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은 한국신용정보원이 미래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스콤은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디지털 전환 여정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상법개정 '직' 걸었던 이복현, 사의표명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만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금융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의 표명을 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만류했으며,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전화를 걸어 사의 표명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거취 문제와 관련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할 수 없다"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직접 대통령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 준공 전력망 확충으로 발전제약 해소

산업부, 21년 만에 본격 가동
전력 추가구입비 3500억 절감
충남 전력망 확충, 산업투자 탄력
산업2차관 “새 패러다임 실현”

서해안 전력망 확충을 위한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가 사업 착수 21년 만에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345kV(킬로볼트)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 사업 준공식 행사 현장에 최남호 2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는 2003년 사업에 착수해 2024년 11월 운전개시까지 21년이 소요됐다. 입지선정과 지자체 인허가가 늦춰지며 준공이 미뤄져왔다.

그간 송전망 확충이 지연됨에 따라 충남 서해안 지역은 발전소의 전력 생산에 차질이 계속돼 왔다. 발전력 대비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량에 제약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송전망 확충을 계기로 서해안 지역의 발전제약이 일부 해소되면서 연간 약 3500억원의 전력 추가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청과 수도권의 전력인프라가 보강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된 천안·아산지역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345kV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 사업 준공식 행사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21년 공사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없었던 점을 높이 평가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대규모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밝혔다.

최 차관은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력망특별법’을 통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버넌스와 지역주민 보상·지원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당국은 앞으로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

이며, 일선 현장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력당국은 현재 당진지역 내 345kV 규모 당진화력-신송산, 신당진-북당진 송전선로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최 차관은 지자체장 등 주요 참석자를 만나 “충남지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다소비 산업 육성 계획에 전력설비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지역의 전력망 확충 사업에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봄철 성어기 대비 中 어선 불법어업 단속

해수부, 오늘부터 15일까지 실시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와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 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와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1일~9월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장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 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 어선 불법 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간



해수부가 봄철 성어기 대비 중국 어선 불법 어업을 단속한다.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희석 기자 vbkim11@

환경부, 국제 물정책 기준 마련한다

‘국가 물평가 이행지침’ 발간

환경부가 ‘국가 물평가 이행지침’을 유네스코(UNESCO)와 공동으로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중 공개 예정인 이발행물은 국제사회 물 정책 결정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네스코 회원국 대상의 물평가 이행지침은 종합적인 국가 물평가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을 수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침 작성을 목적으로 의제 구성 단계부터 유네스코 선도국가 그룹에 참여해 왔다. 한국은 지난 2023년 유엔 물 총회에서 주도적 참여 의지를 표명한 뒤 지난해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선도국 지위에 오른 바 있다. 이번 공동 발행물은 유네스코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 한국위원회 누리집’에 이번 주 내로 공개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또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물과학 보고서’를 올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안으로 시범적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물평가 방법론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유네스코는 오는 2032년까지 ‘물과학 보고서’의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이행지침이 그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7년 뒤 공개될 물과학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수질, 수문, 생태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부 대형 온라인쇼핑몰 ‘단위 가격’ 표시제

즉석박, 즉석죽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등 잡화품목이 단위가격 표시품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또 대형 온라인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1년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고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작년 10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쳤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하는게 골자다.

이에 따라 이육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 등 30개가 새롭게 단위가격 표시품목에 추가된다.

다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표시단위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세종=한용수 기자

첨단산업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산업부, K-Tech Pass 프로그램 시행
반도체 등 30여개 기업 대상 설명회

첨단산업 분야 국내 취업한 외국인에게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고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K-Tech Pass 프로그램은 우수 해외인재에게 탐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1인당 GNI(국민총소득)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탐티어비자(F-2)가 발급되는데,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 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F-5) 전환자격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정착지원을 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의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제도 적용, 금융·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업부는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 30여개 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탐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진행됐다.

K-Tech Pass 프로그램 신청 절차 등 상세 정보는 코트라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 발족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응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7월 공식 출범한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초대 의장국으로서 대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비하기 위해 역대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올해 두 차례 위기대응네트워크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공급망 교란 대비 모의훈련 실시, 공급망 정책

및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공조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세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모의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헬스케어, 광물 분야 등에서 훈련이 필요한 공급망 위기 취약 품목을 선별하고, 훈련 방식과 시나리오 개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공급망 불확화 등으로 공급망 교란 위기가 높아진 이때, 위기 상황에서 IPEF 회원국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당신에게 꼭 맞는 **아치트**”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퓨터매니저 소유현

출연 서지아 김재은 표혜미 서은교 | 황수빈 최우성 석우성 이규진 | 한재우 김도경 공민규 김록현 | 박나연 현지수 오미준 김정은 | 임영식 이선 박형석 최윤재

주최·제작 극단지우 협찬 사모계절 티켓문의 interpark 티켓 공연문의 02.332.4902

2025 JWOO Production Presents

'K-급식' 파이 키운다... 베트남·미국 등 글로벌시장 접수

아워홈 美 등 5개국서 사업장 110곳
중 사업장의 70% 한식코너 운영
삼성웰스토리 해외 누적매출 8600억
중·베트남·美·헝가리에 법인 세워
현대그린푸드 7개국서 88곳 운영
작년 해외 매출액 900억 웃돌아



국내 급식 기업들이 해외 급식 사업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DALL-E

국내 급식·식자재 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국내 학교·병원·기업체 중심의 급식 사업에 머물렀던 업체들이 K-푸드 열풍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베트남, 미국, 중동 등 식문화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지화 전략과 유통망 확보에 나서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아워홈·삼성웰스토리·현대그린푸드 등 3개사의 해외 급식 사업장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3개 회사의 해외 급식 사업장은 2020년 253곳에서 지난해 말 기준 313곳으로 20% 가량 늘었다.

아워홈은 미국 중국 폴란드 베트남

멕시코 등 5개국에서 해외 사업장 110여 곳을 운영 중이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사업장에서 한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내 사업장의 70%, 베트남 사업장의 46%가 한식 코너를 고정 운영 중이다. 지난해엔 베트남에서 현지 최대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FPT그룹 계열사의 2만 식 규모 단체 급식을 수주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LA 국제공항내 기내식 공급업체인 하코(Hacor)를 인수해 기내식 시장에도 진출했다.

2021년에는 미국 공공기관인 우정청(USPS) 구내식당 위탁 운영을 수주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전까지 국내 급식업체는 해외 시장에 진출한 그룹사 물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해외 급식 사업장과 계약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삼성웰스토리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급식 및 식자재 유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누적 매출 8600억원을 돌파했다.

삼성웰스토리의 해외 급식 사업장의 80%는 삼성그룹 내부가 아닌 외부 회사다. 베트남의 마이크로소프트(MS)로 불리는 FPT소프트웨어,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 미쉐린, 세계 최대 의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기업 리젠트 등이 주요 고객사다.

삼성웰스토리는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지난해 미국과 헝가리에도 법인을 세웠다. 헝가리 법인 설립 후 열린 삼성 SDI 급식 사업 경쟁입찰에서 기존 현지 급식 업체를 제치고 구내식당 운영권을 따냈다.

현대그린푸드도 글로벌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사는 2011년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중국 멕시코 미국 등 7개국에서 총 88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 단체급식 매출액은 9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한식 메뉴를 선택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해외 단체급식 연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단체급식 사업

장에 한식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웰스토리와 아워홈 등 주요 급식 업체들이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국내 급식 시장의 성장 한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저출산 여파로 급식의 주요 수요처인 학교 수가 줄어들고, 기업들마저 사내 식당 운영을 축소, 외부 식사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국내 급식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동남아와 중동 지역은 빠른 도시화로 기업과 학교 수가 증가하며 단체급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K-푸드를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인지도까지 높아지면서 한국식 급식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역시 상승세다.

업계 관계자는 "급식 시장은 국내에 선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큰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게 필수"라며 "최근 몇 년 사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만큼 현지화 전략과 한국식 메뉴의 강점을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리아 인기메뉴 50% ↓ 7일부터 '잇츠 페스타' 돌입

롯데GRS '롯데잇츠'서 3주간 진행
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 도넛 참여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통합 외식 주문 앱 '롯데잇츠'에서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롯데잇츠 페스타'를 진행한다. 인기 메뉴 할인 쿠폰, 선착순 이벤트, 마일리지 핫딜, 미니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로 롯데잇츠 앱을 통해 진행된다.

잇츠 페스타는 롯데리아를 포함해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 도넛까지 참여하는 롯데GRS의 캠페인으로 이번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각 브랜드별 TOP5 메뉴를 최대 50% 할인해주는 쿠폰을 제공한다. 엔제리너스 아메리카노, 크리스피크림 도넛의 오리지널 글레이즈드를 비롯해 롯데리아는 특별히 리아새

우, 데리버거, 치즈스틱 3가지 품목을 할인한다. 신규회원은 최대 50%, 기존회원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선착순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잇츠 선착순 쿠폰은 매일 오전 10시에 롯데잇츠 앱에서 매일 1000명씩 5000원의 매장 픽업 할인쿠폰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또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과 제휴하여 매장 방문 및 픽업 고객 대상으로 100% 당첨 스크래치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결제금액 관계없이 주문 1건당 1매를 증정하며 1등은 1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쿠폰 외 마일리지 행사도 펼쳐진다. 롯데잇츠 마일리지인 잇츠마일로 구매 가능한 상품 전체(플레이팅 제외)를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하루에 1개의 ID당 쿠폰 별 1개씩 구매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뉴질랜드 '드라이랜드 소비농 블랑' 첫 선

하이트진로 '말보로' 프리미엄 와인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뉴질랜드 '말보로(Marlborough)' 지역 프리미엄 와인 '드라이랜드 소비농 블랑(Drylands Sauvignon Blanc·사진)'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드라이랜드 와이너리는 1980년 설립, 말보로 지역 최초의 소비농 블랑 포도나무가 심어진 밭 일부를 소유하며 고품질 와인을 생산했다. 2006년 세계 최대 소비농 블랑 생산업체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Constellation Brands)가 인수하고 2020년 대규모 투자와 리뉴얼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했다. 이후 첫 출시된 2023년 빈티지는 미국 유명 와인 어워드인 '텍솜 어워드(The TEXSOM Internatio

nal Wine Awards)'에서 플래티넘(Platinum)을 수상, 2024년 빈티지는 세계적인 와인 매거진 '와인 어드보케이트(The Wine Advocate)'에서 91점을 획득하며 품질을 인정 받았다.

'드라이랜드 소비농 블랑'은 열은 레몬 색상에 자몽과 같은 시트러스 과일 향이 풍부하다.

특히 레몬 제스트의 싱그러운 산미와 열대 과일의 풍부한 맛이 조화를 이뤄 깔끔하면서 긴 여운을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굴, 새우, 연어 등의 해산물 요리나 태국식 샐러드와 같은 아시아 요리 또는 염소 치즈, 브리 치즈 등 부드러운 치즈류와 함께 하면 좋다.

드라이랜드는 전국 주요 와인샵, 레스토랑, 호텔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랜더스 쇼핑 페스타' 할인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브랜드 관계자 모습. /신세계그룹

신세계그룹 한우 등 최대 반값 '랜더스 쇼핑페스타'

신세계그룹은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2025 랜더스 쇼핑페스타'를 개최한다.

'랜더스 쇼핑페스타'는 신세계그룹이 주최하는 상반기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트레이더스 등 그룹 계열사들이 참여해 대규모 할인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000억원 상당의 물량을 준비했다.

우선, 신세계그룹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기 상품을 엄선해 소개하는 '랜쇼 페스타템 TOP100'을 진행한다.

이마트는 행사 기간 한우, 계란, 다이스 청소기 등 주요 상품을 최대 반값에 제공한다. 또,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대규모 할인과 적립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행사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한우 전 품목과 호주산 냉장 찜갈비를 최대 반값에 선보이며, 수입 포도는 전 품목 30% 할인가로 준비했다.

봄 이사와 웨딩 시즌을 맞아 가전 행사도 마련됐다. 다이스 브랜드의 'V12s 오리지널 서브마린 청소기'와 드림미 브랜드의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트리미 L10S 울트라 젠' 등을 할인가로 선보인다. /안재선 기자

컬리 '주간 빵집투어' 방문자 150만명

1년간 90개 브랜드서 상품 선택 리테일테크 기업 컬리는 지난 1년간 '주간 빵집투어' 기획전 방문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컬리가 상시로 진행하는 '주간 빵집투어'는 베이커리 전문관을 콘셉트로 한 기획전이다. 베이커리 전문 상품기획자(MD)가 매주 신상품과 판매량을 기준으로 식사빵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성해 제공한다. 지난

해 3월 첫 오픈 이후 올해 3월까지 90개 브랜드의 2,000여 개 베이커리 및 관련 상품을 선보였다.

컬리는 주간 빵집투어 기획전을 통해 다양한 베이커리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기획전을 통해 그 주에 입점한 신상품 베이커리 제품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컬리는 이달 7일까지 '그로서리&베이커리' 기획전을 진행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롯데百, 美 '스포티앤리치' 매장 유치

에비뉴엘 잠실점 5층에 세계 첫 백화점 1호 매장

롯데백화점은 미국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 '스포티앤리치'의 세계 첫 백화점 매장을 에비뉴엘 잠실점 5층에 연다고 2일 밝혔다. 이 매장은 스포티앤리치의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백화점 공식 1호점이다.

스포티앤리치는 2014년 미국 패션 디자이너 에밀리 오버그가 선보인 브랜드다. 온라인 잡지에서 출발해 건강, 운동, 고급스러움을 조화롭게 담은 패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에비뉴엘 잠실점에 문을 여는 스포티앤리치 매장은

은 현대적 감각을 강조한 고급 생활양식 매장으로 꾸며진다. 스웨터, 티셔츠, 액세서리 등 기본 품목 외에도 고급 외투와 청바지를 갖춰 차별화된 구성을 선보인다는 게 롯데백화점 측 설명이다.

여성 상품에 집중했던 기존 구성에서 벗어나 남성, 아동, 화장품까지 제품군을 확장한다. 이번 봄·여름 시즌만 총 200여 종의 상품이 마련됐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스포티앤리치의 세계 첫 백화점 매장을 국내 최대 명품관인 에비뉴엘 잠실점에 유치함으로써 '영리치 쇼핑 타운'으로 불리는 롯데타운 잠실의 위상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재선 기자

제약·바이오업계, 글로벌 관세 촉각 리쇼어링·가격인상 등 대응책 고심

美 제약사들 '단계적 관세' 요구
글로벌 빅파마, 대규모 투자 고려
일각선 의약품 접근성 감소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4월 2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제약사들은 수입 의약품에 대한 '단계적 관세'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은 줄이고,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전환할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형 제약사들은 주로 미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등에 제조 시설을 구축해 왔다. 이들이 미국에서 더 많은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시설을 이전하는 데는 시간, 비용 등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글로벌 빅파마의 경우, 최근 해외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어링' 전략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태세다.

일라이 릴리는 향후 5년 동안 4개의 새로운 생산 공장을 포함해 미국 내 제조 역량 확장에 270억달러를 투입한다. 머크도 미국 내 백신 생산을 위한 10억달러를 마련하고, 존슨앤드존슨은 미국 내 제조 비용으로 550억달러를 투자한다.

특히 미국제약협회(PhRMA)는 제조뿐 아니라 안전성,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규제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5~10년의 기간과 20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도 미국제약협회는 이러한 한계점을 강조하며 향후 몇 년에 걸친 점진적 관세 인상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바이오협회(BIO)도 의약품 관세 부과는 의약품 가용성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관세 부과에 따라 제조 비용이 급증하면

서 미국 내 의약품 공급이 취약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를 승인받은 의약품을 기준으로, 미국 바이오 기업의 약 90%가 자사 의약품의 최소 절반 이상에서 해외에서 수입된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바이오협회의 설문조사에서, 유럽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94%가, 캐나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82%가, 중국 의약품에 대해서는 70%가, 인도 의약품에 대해서는 56%가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도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가 올라가면, 향후 그만큼 의약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무역 조치가 환자 부담으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는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에 차질이 생기는 등 무역 전쟁으로 인한 영향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oul.co.kr

대응제약, '펙수클루' 보험급여 획득

10mg 제품 출시... 처방영역 확대

대응제약은 3세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사진)'의 위염 적응증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획득해 10mg 용량을 본격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연간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위염 환자들은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펙수클루를 처방받을 수 있다. 대응제약은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펙수클루 처방영역이 급성에서 만성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펙수클루는 지난 2022년 위염 적응증 임상 3상에서 급성 및 만성 위염에 대한 위점막 병변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해당 연구의 제1저자인 부산대병원 김광호 소화기내과 교수는 "기존 2세대 치료제인 '양성자펌프억제제(PPI)' 계열 약물이 히스타민2 수용체를 차단하는 기전을 갖춘 1세대 치료제를 대체한 것처럼 이제는 펙수클루가 3세대 치료



제로 입지를 넓힐 것"이라고 평가했다.

펙수클루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약물로, PPI 치료제의 단점인 ▲느린 약효 발현 ▲야간산분비 ▲식이 영향 ▲약물 상호작용 등을 개선한 차세대 신약이다.

대응제약은 지난 2022년 제34호 국산 신약으로 '펙수클루'를 선보였고 이후 지난 2024년 펙수클루 연매출은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러한 성장세에 이어 대응제약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NSAIDs) 유발 궤양 예방,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거 등으로 펙수클루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오스템카디오, '오스템바스쿨라' 사명 변경

혈관계 전반으로 사업영역 확장

오스템임플란트의 자회사 오스템카디오가 사명을 '오스템바스쿨라'로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운 사명 오스템바스쿨라의 '바스쿨라'는 '혈관'을 의미하는 단어로, 기존 오스템카디오의 '카디오'는 심혈관을 의미했다.

사명변경과 함께 회사는 심혈관에서 뇌혈관, 말초혈관 등 혈관계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오스템바스쿨라의 핵심 사업은 혈관 중재 의료기기 부문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절개 없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중점을 둔다.

앞서 올해 1월에는 프랑스 다국적 의료기기 기업 발트와 총판 계약을 맺으며 사업 확장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오스템바스쿨라는 발트의 대표 뇌동맥류 치료기기 '옵티마 코일 시스템'을 국내

독점 공급하게 됐다.

오스템바스쿨라는 2021년 제1호 국산 에베로리무스 약물 방출 관상동맥용 스텐트 '센텀'을 출시하며 시장 입지를 다졌다. 이후 기존 '스텐트 연구소'를 '중재 의료기기 연구소'로 개편하며 연구개발 역량도 강화해 왔다.

한편, 이번 사명 변경은 2023년 4월 오스템카디오텍에서 오스템카디오로 사명을 변경한지 2년 만이다. 이후 2023년 매출 42억원, 2024년 매출 54억원 등으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 5년 내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한 바 있다.

박근진 오스템바스쿨라 대표이사는 "이번 사명 변경은 혈관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 확장과 함께 브랜드 정체성을 재정립해 글로벌 혈관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한독, 항암제 역량 입증... 사업 확장 속도

美 파트너사, 토베시미그 유효성 확인
2026년 담도암 혁신신약 출시 목표

한독이 담도암 신약개발에 주력하며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기존 전문의약품 사업에서 항암제를 성장동력으로 마련해 기업 외형과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일 한독에 따르면, 한독 파트너사 미국 컴퍼스테라퓨틱스는 '담도암 2차 치료제'로 활용 가능한 토베시미그의 약물 유효성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컴퍼스테라퓨틱스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담도암 성인 환자 168명을 대상으로 한 '토베시미그' 글로벌 임상 2/3상인 COMPANION-002의 톱라인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임상은 토베시미그와 파크리타셀의 병용 요법과 파크



한독 본사 전경.

/한독

리타셀 단독 요법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1차 평가지표 분석 결과, 토베시미그는 유의미한 객관적 반응율을 보였다. 토베시미그와 파크리타셀 병용요법은 1건의 완전 관해를 포함해 객관적 반응율(ORR)이 17.1%로 나타난데 비해, 파크리타셀 단독 요법의 객관적 반

응율은 5.3%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번 임상의 경우, 한독이 앞서 진행한 한국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져, 한독의 연구개발 역량까지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컴퍼스테라퓨틱스는 한국 임상 2상 데이터를 근거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글로벌 임상 2/3상 승인을 빠르게 획득한 바 있다. 또 토베시미그는 2024년 미국 FDA에서 패스트트랙 지정도 받았다.

이러한 토베시미그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독은 이 물질을 오는 2026년 담도암 혁신신약으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공략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독은 자사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를 항암제로 대폭 확장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그룹, 대대적 조직개편 단행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 첫 메시지
"신약개발 명가" 한미 정체성 공고히

한미약품그룹은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사진)가 취임 후 첫 CEO 메시지를 전달하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김재교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명가 한미,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한미사이언스는 지주회사로서, 한미약품은 핵심 사업회사로서, 30여 개 관계사



들은 유기적 협력으로,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더 좋은 의약품을 우리 기술로 만들고자 했던 창업주의 뜻을 이어받아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자"며 "이 벅찬 여정에 모두 함께 해 한미의 새로운 비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한미약품그룹은 미래 중장기

사업 전략을 수립·운영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지주사와 사업회사 간 유기적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한미사이언스 내에 '기획전략본부'와 '이노베이션(혁신)본부'를 신설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 사업 발굴과 전략적 성장 기회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그룹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조직들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동국제약, 마시는 판비틴 정관장, 지엘프로 84병

동국제약은 전국 GS25 편의점에서 '마시는 판비틴(사진)'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마시는 판비틴'은 액상 제형으로 설계돼 빠르게 흡수되는 것이 특징이다. 1포당 비오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를 함유하고 있다. 또 비타민B군, 비타민C, 아누카사과추출분말, 맥주효모, 콜라겐펩타이드, L-시스틴 등이 더해져 다양한 영양을 갖출 수 있고 휴대성도 높다.

동국제약은 이번 신제품 출시로 기존 이너뷰티팀 마시는 센시안에 이어 액상형 제품군을 확장하게 됐다.



정관장이 단일 상품으로 3달 동안 혈당을 케어할 수 있는 '지엘프로(GLPro) 84병'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엘프로'는 정관장 홍삼을 주원료로 여주농축액 등 부원료를 배합해 혈당을 집중 케어할 수 있는 'GLPro 코어'와 혈당과 동시에 체지방까지 케어할 수 있는 'GLPro 더블컷'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번 출시된 제품은 '지엘프로 코어'와 '지엘프로 더블컷' 2종으로 제품 내 감당(건강하게 혈당을 줄인다는 의미) 챌린지 캘린더가 포함되어 있어 12주 동안 스티커를 붙여가며 감당의 재미와 습관을 들일 수 있고, 꾸준하게 혈당을 케어할 수 있다.

'지엘프로 84병'은 전국 직영점, 가맹점, 백화점, 마트, 정물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한국자산관리공사, 창립 63주년 기념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일 창립 6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권남주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은행, 일산 전통시장 '장금이 결연' 체결

우리은행은 지난 1일 일산 전통시장과 '장금(場金)이 결연'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전담창구 마련, 결제 단말기 지원,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등에 힘쓸 예정이다. 송윤홍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왼쪽 두번째), 박해군 일산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왼쪽 세번째)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롯데홈쇼핑, '숨;편한 포레스트' 13호 착공

롯데홈쇼핑이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지체장에 특수학교인 서울정민학교에서 장애 아동 생태 교육을 위한 친환경 녹지 공간 '숨;편한 포레스트' 13호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도규 롯데홈쇼핑 커뮤니케이션부문장(오른쪽부터), 오재준 서울정민학교 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33기 해외박사 장학생 선발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2025학년도 33기 해외박사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장학금은 유학 국가에 상관없이 1인당 12만 달러다. 5년 이내 8학기 동안 지원하며 입학 후 출국과 졸업 귀국 시 항공료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0만원 한도 내 연구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2일부터 27일까지며 일주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발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로 이뤄지며 7월 중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인사

◆광주과학기술원△고등광기술연구원장 고도경

부음

▲임영례씨 별세, 이상훈(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지원본부장 전무)·현숙·인숙씨 모친상, 이경열·홍순영씨 빙모상, 심지성씨 시모상=2일,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일, 02-2072-2010
▲김종선씨 별세, 오창호(LS MnM 안전환경지원부문장)씨 모친상=2일 오전, 부산 인창병원 장례식장 401호, 발인 4일, 051-464-5858
▲박동순씨 별세,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씨 장인상=2일, 경기 팽택 제일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4일, 031-611-1144

‘삼성호암상’ 수상자 발표... 신석우·정종경 등 6인

호암재단, 김승우·김동해 등 선정 오는 7월 수상자 강연회 개최 예정

호암재단이 2일 '2025 삼성호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학술, 예술, 사회봉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이룬 6명으로 선정됐다.

올해 수상자는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신석우(47) UC버클리 교수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정종경(62) 서울대 교수 ▲공학상 김승우(69) KAIST 명예교수 ▲의학상 글로리아 최(47) MIT 교수 ▲예술상 구본창(72) 사진작가 ▲사회봉사상 김동해(60) 사단법인비전케어 이사장 등 총 6명이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 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내달 30일 열린다.

과학상 물리·수학부문의 신석우 교수는 현대 정수론 발전에 기여한 세계적 수학자로, '랭글랜드 추측



과학상 신석우 UC 버클리 교수



과학상 정종경 서울대 교수



공학상 김승우 카이스트 명예교수



의학상 글로리아 최 MIT 교수



예술상 구본창 사진작가



사회봉사상 김동해 비전케어 이사장

의 다양한 사례를 확립하며 수학의 경계를 확장했다.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의 정종경 교수는 파킨슨병 원인 유전자의 작동 기전과 기능을 최초로 규명하며 퇴행성 질환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학상 수상자인 김승우 교수는 펨토초 레이저를 활용한 초정밀 광계측 기술을 개척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거리 측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기술을 개발했다.

의학상을 수상한 글로리아 최 교수는 면역체계와 뇌 발달 간의 연관성을 연구해 자폐증과 같은 뇌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예술상의 구본창 사진작가는 한국 전통미를 재해석한 사진 작품으로 세계적 명성을 쌓아왔으며, 한국 현대 사진예술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사회봉사상 수상자인 김동해 이사장은 국제실명구호NGO '비전케어'를 설립해 39개국에서 23만 명이

의 시각장애인을 치료하며 인류애를 실천했다.

호암재단은 1991년부터 삼성호암상을 통해 학술, 예술, 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계 인사를 선정해 왔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삼성호암상은 총 182명의 수상자에게 361억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한편, 호암재단은 오는 7월 삼성호암상 수상자 등 최고의 석학들을 초청해 청소년 대상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영남권 산불피해 복구 지원

대한상의, 성금 8억 전달... "모금·기부 이어갈 것"

전국 73개 상공회의소 성금 조성 "경북, APEC 열리는 중요 지역"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사진)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8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성금 조성에는 대한상의를 비롯한 전국 73개 상공회의소가 참여했으며 구호 성금은 피해지역 지자체와 역내 구호지원기관 등에 전달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김학홍 행정부지사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깊은 위로



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은 올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요한 지역으로, 대한상의도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연대의 의미를 담아 이번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국 73개 상공회의소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기부와 모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기준 대한상의, 부산상의, 대

구의, 창원상의 등이 총 8억원을 모금한 가운데 지역상의 참여와 문 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모금액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를 통해 향후 경북, 영남지역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나무심기', '산불 예방 캠페인' 등 산불 피해 복구 및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피해가 가장 큰 경북지역을 시작으로 피해지역 지자체와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지부 등과 협력해 기부물품과 성금을 차례로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OCI홀딩스, 2억 기탁

OCI홀딩스(회장 이우현·사진)가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OCI홀딩스는 최근 영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긴급 구호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OCI홀딩스와 OCI 주식회사가 각 1억원씩 마련한 이번 성금은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경북·경남·울산 등 피해 지역민들을 위한 생필품 등의 긴급 구호는 물론 추후 이들의 일상복귀 지원, 산림 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조현범 회장, 소통 중심 조직문화 선도 한화-코오롱, 미래세대 교육환경 개선

(한국엔컴퍼니그룹)

'프로액티브 콘서트' 확대 운영 주요 경영진 분기 최소 1회 참여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소통 프로젝트 '2025 프로액티브 콘서트'를 그룹 차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프로액티브 콘서트는 조직 구성원들이 수평적이고 진솔하게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프로젝트로 지난 2013년 한국타이어 엔테크놀로지가 시작한 이후 10여년 간 조직별로 소규모 진행돼 왔다.

그룹 차원 행사로 확대한 올해 첫 그룹 차원 콘서트는 지난 28일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 대전 유성구 테크노돔 등에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원 생중계로 진행됐다.



향후 박종호 한국엔컴퍼니 대표는 매달 참가하고, 안종선·이상훈 한국타이어 대표 등 계열사 대표들은 분기 최소 1회 참여하기로 했다.

조현범 회장(사진)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글로벌 구성원들과 수평적이고 진솔하게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로액티브컬처(Proactive culture)'는 조 회장의 핵심 경영 철학이다. 개인주도성, 실행중심, 현장기반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한국엔컴퍼니그룹의 글로벌 전략 및 디지털전환·인공지능전환(DT·AI) 등 혁신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양성운 기자 ysw@

상의 ERT,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

한화와 코오롱이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인식향상과 교육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는 2일 대전시 진잠초등학교를 방문해 '제6차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신연 한화사회봉사단장(한화솔루션 사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택구 대전시 정부경제과학부시장 등이 함께 했다.

한화는 '맑은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초등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환경교육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22년 시작한

'맑은학교 프로젝트'는 첫 해 4개교를 시작으로 4년간 총 21개교, 약 1만5000 명의 어린이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교실을 지원했다. 올해는 다함께 나눔프로젝트가 진행된 대전 진잠초를 포함, 서울 양화초, 광주 금당초, 통영 용남초 등 총 6개교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학교에 대한 지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스마트 에어샤워, 에어클린매트, 벽면녹화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류교실을 리모델링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맑은 침,터'를 조성하는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오롱은 '에코 통풍 프로젝트'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소재 학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다시 켜진 '빨간불' 국가신용등급



김문호의
단상

씨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치 않게 오래 지속되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효과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계 투자은행인 노무라 “2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우 국고채 등 금융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채권 등 한국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이어 투자은행과 경제 분석기관들까지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 증가”를 경고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채 발행금리가 오르고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는다. 외국자본 이탈로 환율이 급등하는 등 여파가 심각하다.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하기까지 14년이나 걸렸을 만큼 복원도 쉽지 않다.

이미 시장 곳곳이 잿빛 그림자다. 정부

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지난해 예상치보다 0.4%포인트나 낮아졌다. 잠재 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예고다.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지연이라는 정치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경제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영국 소재 경제 분석기관인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제로성장’(0.9%)을 전망했다.

달라당 원화도 1500원을 바라본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로, 파운드, 위안 등보다 푸대접이다. 수출, 내수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국내외의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정치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 달러 자금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경제위기 때엔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경기 회복의 발판이 됐다. 하지만 대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과 원자재·부품 해외 의존이 늘어난 지금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 수입물가 상승, 소비 위축 등 ‘나쁜 원저’ 현상이 훨씬 심각하다.

나랏빚도 눈덩이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의 부채를 더한 국가총부채 규모는 6222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배나 되는 규모

다. 추가경정예산을 생각하면 나랏빚은 더 늘 가능성이 크다.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는 197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약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다면 추가로 240조 원(국고채 발행)까지 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제와 금융 시장이 흔들리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부담은 신용강등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과 빚 상환능력을 따지기 때문이다.

또다시 국가신용등급까지 강등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시각이 굳어지고, 나라와 기업들의 차입비용이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보게 된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나타났던 환율 1500원 시대가 조만간 닥칠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치 리스크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오랜 기간이 걸리고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kmh@metroseoul.co.kr

부동산 규제의 속도전과 신뢰



기지수첩
전지원
(금융부)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불과 두 달여 전 5년간 유지됐던 토허제를 해제했지만 거짓말처럼 뒤집혔다.

거래가 늘자마자 규제를 다시 씌운 셈이다. 급등 조짐을 선제 차단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투기 수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고 정책 신뢰도만 더 깎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생명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거래를 억제하겠다는 목표 외에 어떤 설계도 없다. 해제하자마자 다시 묶고 또 다시 해제할 가능성도 열어둔다.

시장 참여자들은 더는 정부의 방향을 기준 삼지 않는다. 규제를 앞세운 신호보다 실질적인 대출 조건과 공급의 흐름을 따르는 쪽이 훨씬 많다.

강남3구와 용산이 다시 규제 지역이 되자 수요는 강동·마포·성동으로 이동 중이다. 풍선효과는 지난 2020년과 유사한 흐름이다. 거래는 줄고 가격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경험이 시장에 깊이 새겨졌다.

실제로 2020년 토허제 지정 당시 거래량은 70% 이상 줄었지만 가격은 대치동 기준 35% 넘게 뛰었다. 규제 하나로 시장 전체를 누르긴 어렵다는 증거다.

이번 조치도 마찬가지다. 실거래 데이터를 보면 가격은 여전히 ‘버티기’ 중이다. 시행 직전 일부 단지는 가격을 낮춰 거래를 시도했지만 표본 수가 적고 대부분은 직거래로 통계의 대표성도 부족하다.

오히려 매수자들은 관망하고 매도자는

버티는 눈치싸움만 심화됐다. 정부가 다시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은 이미 그 수를 읽고 있었다. 문제는 신뢰다. 규제는 정책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규제의 반복은 시장의 무감각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목소리를 공허하게 만든다.

시장은 수없이 많은 규제를 겪었고 그만큼 우회하는 법도 익혔다. 부동산공인중개사 사이에서는 이번엔 얼마나 갈지가 핵심 화제다. 정책이 통제 수단으로만 작동하면 시장은 결국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규제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진짜 힘은 효과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시장은 이미 과거처럼 단순하지 않다. 규제를 반복할수록 시장은 더 똑똑해지고 정부는 점점 설득력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건 다음 카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제의 이유를 묻고 해법을 고민하는 일이다.

jjw13@

오늘의 운세 4월 3일 (음 3월 6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먼저 주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것을 받는다. **48년생** 작은 실수를 확대하여 비판하지 마라. **60년생** 바쁘더라도 우편물을 확인하는 습관을. **72년생** 아랫사람의 직언이 부담스럽다. **84년생**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볼 것.
- 37년생** 경험자의 학습을 이어가는 것도 현명. **49년생** 변화 속에서 반드시 기회가 온다. **61년생** 당장은 어려워도 꾸준히 노력해보라. **73년생** 아들이 잘되니 집안에 손님도 많아진다. **85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운이 열리게 되니.
- 38년생** 집에 가면 가족 문제로 근심 나오면 반기는 곳 없어 고독. **50년생** 타협의 연속이다. **62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도움 받는다. **74년생** 남편이 먼저 가도 따라갈 수도 없다. **86년생** 칭찬을 남발하면 싫어해 보인다.
- 39년생**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 **51년생** 열정과 힘이 넘치는 하루. **63년생** 옷을 준비를 하고 사람을 만나면 된다. **75년생** 돈은 부족해도 의리는 깊어야 할 터. **87년생**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손실이 적어진다.
- 40년생** 최선의 일이 행복. **52년생** 첫 손가락에 배부르기 힘드니 힘내라. **64년생** 뛰어난게 아름다우니 성형은 글세 하지 않는 것이. **76년생** 기술 배울 때 처음에는 초보의 수준 한 걸. **88년생** 살면서 생긴 지혜가 도움을 준다.
- 41년생** 왕 자신감에 빛난다. **53년생** 달라려만 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라. **65년생**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77년생** 자신의 미래에 조금씩 투자하고 오랜 세월을 지켜 봐야 할 것. **89년생** 몸이 멀리 가니 마음도 멀어지게 된다.
- 42년생**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54년생** 서북 이사는 무방하다. **66년생** 전심전력을 다 해보면 다행이 나온다. **78년생** 길을 헤매지 말고 미래가 어떨지를 계획 상상해보자. **90년생**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점검해 볼 때이다.
- 43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보라. **55년생** 목이 마르면 스스로 우물을 파자. **67년생** 이성 상대를 너무 채근하면 튕겨 나간다. **79년생** 현실이 냉정한 것이 아니라 안일한 것은 아니다. **91년생** 타령만 하고 있기에 시간은 부족하다.
- 44년생** 옛날 일을 잘 알면 오늘도 알게 된다. **56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대니 자제. **68년생** 작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얻어라. **80년생** 성실하게 살다 보니 온갖 일에 많이 알게 되더라. **92년생** 부모님이 계셨던 세월이 정말 행복했다.
- 45년생** 자꾸만 가려는 사람은 붙잡지 마라. **57년생** 기대가 너무 커서 서운함도 크다. **69년생** 연인에게 의미 부여는 상황을 왜곡시킨다. **81년생** 한낱의 꿈처럼 덧없는 인생이겠으나 남은 시간 다시 활용. **93년생** 주변 눈치를 보는 하루이니.
- 46년생**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58년생** 겉모양은 화려하나 실속 없는 하루. **70년생** 제발 이간질하지 말 것. **82년생**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 봐야 발전된다. **94년생** 불평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자각해보라.
- 47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도를 걷자. **59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가지 마라. **71년생** 미래에 닥칠 일이 웬지 불안. **83년생** 집안의 번성도 내 대에서 마칠 것 같다. **95년생** 신념으로 할 때가 돼야 후회하지 않게 되니 실력 없는 현실을 보라.

김상회의四季 그림자 전쟁 세계



김상회의四季
그림자 전쟁 세계

그림자 전쟁, 누군가는 전쟁과 전쟁 사이를 가리켜 그림자 전쟁이라고 했다. 대놓고 국경을 넘어선 전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충돌이 일어난 가자지구처럼 직접적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지만 전 세계는 알게 모르게 그림자 전쟁중이다. 무기와 총칼을 대동하여 직접적 전투와 살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문화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교묘하게 치러지는 찬탈행위가 바로 그림자 전쟁 아니겠는가? 사실 기업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윤을 내기 위해 정보싸움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뉴스가 되었지만, 국내 기업의 우수한 인력들이 퇴직하면서 경쟁사인 외국 기업에 이직했고, 그 과정에 기술을 교묘하게 빼들리다 대거 구속된 일이 있었다. 기술 획득을 위한 그림자 전쟁인 것이다. 실제로 상품개발을 위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스파이전을 비롯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보전쟁을 하는 것이다. 특히나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인터넷을 통한 사기행위에 개인들은 물론 사이버 해킹 등으로 기업들도 흉역을 치르고 있다.

요즘은 로맨스 스캠 방법까지 가세하여 기가 막힐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이 또한 정보화시대의 그림자 전쟁인 것이다. 한 이십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있었다. 필자도 매우 흥미롭게 읽었다. 그 소설은 일루미나티 같은 음모론 속의 조직이 실재함을 주장하고 있다. 어찌 보면 그림자 전쟁을 이끄는 세력 체인 것이다, 인생의 그림자 전쟁을 읽는 코드는 무엇일까? 필자는 주역(周易)쯤으로 보고 싶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철학의 바탕이 되는 우주와 천지자연의 생성과 순환이치를 담고있기 때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7	9	3				6
				8		1
	3	6	8			
						2
6		2		6		
		7	4	1		
9		1				
5			3	9	4	

7		1				2	9
5							
	9	7		3			
			8				2
	7	4		6	1		
8			9				
	8	4		5			
4	9		3				6

6	2	8	4	1	9	5		
4	8	9	5	1	7	2	6	
9	1	6	7	2	4	8	3	
8	1	6	2	4	9	5	7	
3	4	9	6	8	7	1	5	
2	9	7	1	4	9	6	8	
6	7	8	4	9	5	1	2	
1	4	8	2	6	9	5	7	
9	2	5	7	1	4	8	6	3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4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4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바이오허브’에 138억 투입… 바이오 스타트업 키운다

서울시, 바이오·의료 운영계획

유망기술 기업 27곳 선발 입주 기회 국내외 대·중견기업 간 협력 유치 10곳은 스위스 바젤대와 공동연구

서울시가 미래 게임체인저 중 하나인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흥릉 일대에 조성한 ‘서울바이오허브’에 138억 원을 투입한다. 스타트업 발굴·유치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 바이오허브에서 올해 추진하는 바이오·의료 R&D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운영계획을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바이오·의료 산업을 서울의 주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과 종합병원, 국책기관 등이 밀집한 흥릉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바이오·의료 분야 신생기업의 해외



서울바이오허브 전경.

/서울시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글로벌센터’를 개관했다.

◆ 연구지원 등 3대 분야 7개 세부 사업 추진

시는 바이오·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서울바이오허브에 138억원을 투입해 사업 운영, 성장지원, 연구지원 등 3대 분야 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창업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바이오 산업 환경에서 창업기업들이 사업 초창기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이오·의료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27개사를 선발해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산업 분야 재직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경영 전반의 실무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스위스 바젤대와 공동 연구 추진… 셀트리온·BMS 등과 협력

창업 초기 대·중견기업과의 교류가 어려운 스타트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서울바이오허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기업과 국내외 대·중견기업 간 협력을 유지하는 등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관련 시는 3-Track 방식으로 창업기업의 혁신기술과 앵커기업의 수요기술을 매칭시켜 공동연구, L/O(License Out&기술이전), 투자유치 등 기술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 10년 미만의 기업 10곳을 선정해 스위스 바젤대학교와 기술혁신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셀트리온·대원제약·메디톡스 등 국내 대·중견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BMS·노바티스·로슈진단·드레이퍼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매칭을 통해 글로벌시장 진출을 견인한다.

◆ 시설장비 부족한 창업기업에 공용 연구 인프라 제공

글로벌 바이오·의료 생태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BIOUSA(미국, 6월), HLTH(미국, 10월) 등 국내외 주요 바이오·의료 컨퍼런스에 창업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11월에는 서울바이오허브내 오픈콜라보를, 12월엔 허브토크데이와 같은 자체 행사를 통한 정보·인적 교류의 채널도 확장한다.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진출 성장 가속 프로그램’을 실시해 글로벌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전문화된 코디네이션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 대기업과 협력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서울바이오허브에 유치하는 ‘글로벌 인바운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요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시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의료 산업이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양국제꽃박람회 ‘국제인증전시회+’ 인증

국비 지원… 해외 마케팅 박차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국제인증전시회+ 인증을 획득하며 국제 박람회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국제인증전시회+’는 기존국제인증전시회 중 해외 참가업체 비율 10% 이상 또는 해외바이어비율 5% 이상인 전시회를 대상으로 정밀한 평가를 거쳐 부여된다. 이번 인증을 통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국제 화훼 전문 박람회라는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와 함께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주관한 ‘2025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 사업’에서도 유망 전시회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

정에 따라 박람회 측은 국비 지원을 통해 해외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당 사업을 통해 해외 바이어 유치, 국제 홍보 확대 등 실질적인 국제화 추진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국제꽃박람회 이사장은 “국제인증전시회+ 획득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국제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확인받은 결과”라며 “화훼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박람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꽃, 상상 그리고 향기’를 주제로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좋은돌봄 인증’ 요양기관 지원 대폭 확대

서울시 ‘방문요양기관’도 포함 종사자 인건비·인센티브 등 강화

서울시가 공공성 확보와 돌봄 품질향상을 위해 공인하는 ‘좋은돌봄 인증’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돌봄종사자를 위한 인건비 지원과 인센티브 등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좋은돌봄 인증’ 대상이 기존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더해 올해부터 ‘방문요양기관’도 포

함된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노인 인권 보호, 시설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시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 2132개소 중 현재 256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3년간 운영보조금(1600~1억6800만원)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데이케어센터’에는 야간 운영 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난해 2800만원에서 최대 3800만원까지 지원됐지만 올해는 100만원 인상에 최소

2900만원부터 최대 3900만원까지 지급된다. 센터당 대체인력 지원 일수도 연간 12일에서 16일로 확대, 종사자 휴가 등 인력 공백 발생도 막는다.

‘노인요양시설’은 최소 16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안심돌봄가정’은 18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두 시설 모두 종사자 1명당 연간 3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총 5일의 대체인력도 투입한다.

‘방문요양기관’은 좋은 돌봄 인증을 받으면 2인 돌봄이 불가피한 중증 저소득 어르신 돌봄 시 추가 종사자 1인 인건비를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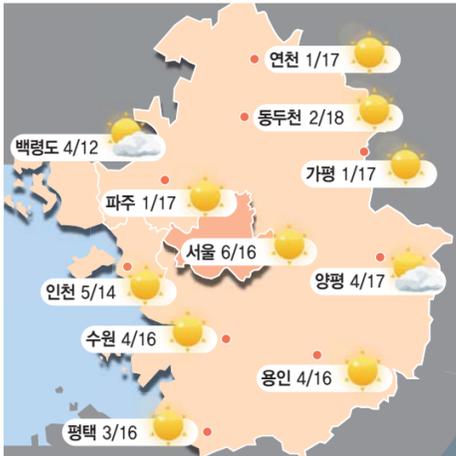
해돋이 / 06:15 | 해질 / 18:56

4월 3일 (木) 음력 : 3월 6일

수도권 날씨

6~1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시교육청-美 AESA, 교육협력 의향서 체결

서울시교육청(교육감정근식)은 2일 미국 주별 카운티 교육당국(ESA)과 지역교육감연합회(AASA)를 대표하는 국립 비영리 교육기관인 ‘AESA’가 교육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형 수학·과학·융합교육(K-STEM)을 추진하면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 AESA(Association of Educational Service Agencies)는 STEM 교육 및 기초학력 보장 등 연방 정책에 따라 지역 학구를 지원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ESA의 웨이드 조안 대표와 이사회 25명은 이날 한성과학고 의수학·과학·융합교육(STEM) 교육현장을 방문해 그동안의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교육 협력을 확인하고, STEM 교육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한다. /이현진 기자

尹 탄핵 심판 선고일 학교 15곳 ‘임시휴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들이 임시휴업한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의 수업 일정을 조정했다. 선고일인 4일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11곳과 광화문 인근 2개 학교, 대통령 관저 인근 2개 학교가 휴업한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미얀마 강진 엿새째 2886명 사망…현지 언론 “4000명 육박” /사진 뉴시스
▲대만 국방부 “포위훈련 첫날 중국 군용기 76대 등 포착”

▲우크라 집권당, ‘여름 대선’ 보도 일축…“계엄 해제 6개월 뒤 가능”
▲EU, 각국 방위력 강화에 ‘격차해소 기금’ 활용 확대한다

▲中 신화통신 “트럼프, 美 우선주의 아닌 美 유일주의”
▲“美국무, 학생 비자 신청자 ‘SNS 사찰’ 지시…반유대주의 단속”



K-급식
베트남·미국 등
글로벌시장 접수
니



Life

제약·바이오업계
글로벌 관세 촉각
대응책 검토
L2



깔끔한 핏에 활동성까지... 패션으로 일-여가 경계 허물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안다르 '에어데님'

유통업계는 현재 빅블러의 격동기를 지나고 있다. 빅블러란 상품과 서비스 분야의 경계가 급속도로 허물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다.

안다르 역시 이러한 경계 허물기에 동참했다. 안다르는 전략적으로 일(work)과 여가(leisure)의 경계를 허문 워크레저룩을 겨냥한 '에어데님'을 선보였다. 에어데님은 애슬레저(운동복)의 기능성을 담아낸 청바지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안함을 추구하는 2030 세대와 직장인을 겨냥해 스타일과 활동성을 모두 고려해 기획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와이드핏, 슬립핏, 테이퍼드핏(허벅지는 넉넉하고 발목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 등 총 15종으로 구성됐다.

워크레저룩은 지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장인들이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새롭게 부상한 패션 트렌드다. 재택근무로 편안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다시 회사로 나서면서, 편안함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기능성 더한 청바지로 워크레저룩 선택
뽀뽀함·무게 빠고, 신축성·복원력 더해
편안함에 전문성도... 2030 직장인 겨냥
와이드핏, 테이퍼드핏 등 다양한 스타일

그중에서 남성 고객의 수요가 두드러졌다. 안다르 관계자는 "출근 등 일상에서도 착용 가능한 슬랙스와 폴로 티셔츠, 셔츠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점에 주목해 남성을 겨냥한 에어데님을 먼저 출시했다"며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입소문을 통해 1년 8개월 동안 에어데님 8만 장이 판매되며 남성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졌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여성용 제품도 전격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안다르는 제품 출시 당시 기존 청바지의 단점으로 지적된 뽀뽀함과 무게감을 해결하는 데 주목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성과 복원력을 겸비한 자사의 라이크라 원사를 활용했다. 라이크라 원사는 신축성과 복원력이 뛰어난 고급 스판덱스 소재로, 안다르는 이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크라 컴퍼니'와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안다르는 에어데님 제품군을 확장해 '에어데님 스트레이트핏' 2종과 '와이드핏' 2종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에어데님 스트레이트핏'은 여성용과 남성용 블랙진 각 2종으로, 기존보다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원하는 고객층을 겨냥했다. '에어데님 와이드핏' 2종은 균살을 가려주면서



◀안다르 '에어데님'



▲안다르 '에어데님'



▲안다르 '에어데님 스트레이트핏' 제품

도 부해 보이지 않는 핏이 특징이다.

한편, 안다르는 워크레저룩 외에도 다양한 제품군 확장에 나섰다. 지난 2015년 요가복을 중심으로 출발한 안다르는 초기에는 요가 라인 제품을 주력으로 선보였으나, 이후 러닝, 골프 등 운동 트렌드에 따라 제품군을 확장하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해 3분기에는 골프와 일상복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골프웨어 제품군을 전년 동기 대비 121% 확대했다. 이는 퇴근 후 야간 골프나 스크린 골프, 골프 연습장에서 운동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일상과 레저를 동시에 아우르는 패션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흑한기에도 착용 가능한 골프웨어로 제품군을 확장을 가속화했다. 기모 특유의 뽀뽀함을 제거하면서도 골프웨어로서의 신축성과 내구성을 유지해 비와 생활 오염에도 깔끔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다.

안다르는 이러한 제품 확장의 성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8% 증가한 328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매출도 동기 대비 17% 증가한 2,36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23년 9%에서 2024년 14%로 상승했다.

안다르 관계자는 "최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으로 혁신적인 기능성에 감각적 디자인을 더한 우수한 제품력,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적 입지 확대와 더불어 적극적인 카테고리 확장이 주효했다"며 "이 같은 요인들이 성공적으로 맞물렸다"고 전했다.

골프웨어 확대 등 다양한 제품군 출시
제품 확장 성과로 지난해 최대실적 달성
싱가포르, 호주 등 해외시장 공략 나서
셔츠, 슬랙스 등 워크레저룩 확대할 것

안다르는 제품 확장에 이어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안다르는 지난해 7월 싱가포르 중심 상권인 '마리나 스퀘어'에 글로벌 1호 매장을 열었으며, 이후 오차드로드 '다카시마 야 백화점'에 2호 매장을 개점했다. 두 매장 모두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며 현지에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이 같은 성공 사례에 기반, 올해는 호주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시드니 변화가 웨스트필드몰에 단독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안다르 측 설명이다.

공성아 안다르 대표는 "에어데님은 활동성과 세련된 핏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어데님을 비롯해 셔츠, 자켓, 슬랙스 등 워크레저룩 제품군을 더욱 확대해 국내외 애슬레저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무려 173조원...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스포츠 구단주는
▲강한 마운드 앞세운 KT 위즈, 슬로 스타터 '이제 그만'
/사진 뉴시스

▲경실련 "창원 NC파크 사고 예방 소홀...중대재해처벌 가능성"
▲K리그1 제주, 4월 전 경기 '동백꽃 패치'...4·3 희생자 추모

▲국가대표 백승호, 3부 생활 끝 임박...챔피언십 승격 보인다
▲끊이지 않는 '손흥민 이적설'...토틸과 작별 다가오나



진정한 AI 폰
Galaxy S25 | S25+
 Galaxy AI ✨

최신 폰 사는, 최선의 방법.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월 5,900원으로 **Galaxy S25 Series** 를 반값에, 파손 보장까지!

1년 후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 시 최대 50% 잔존가가 보장되는 조건이며, 2년 후 반납 시 최대 40%까지 보장됩니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가입 기간에 삼성닷컴을 통해 자급제 갤럭시 S25 시리즈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삼성 개인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가입신청서 작성 후 차월부터 자동 결제됩니다. 외관 파손, 전원 작동 불가, 계정 미삭제 제품 제외 모두 반납 대상입니다.

samsung.com

상기 이미지는 갤럭시 S25, 갤럭시 S25+이며,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일부 AI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UI/UX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산불 사고 희생자와 순직 소방관, 유가족, 이재민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